

## 국제 ODA 동향

(2006. 9)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슈분석

[Page]

-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유·무상 원조의 효과분석](#) [2]
  - ◆ 원조수혜와 함께 경제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토픽

- [우리나라의 ODA 공여실적 추이 분석\(1987~2005\)](#) [21]
  - ◆ EDCF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총 19년간의 우리나라 ODA 공여실적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단 신

- [JBIC, FY2006 1사분기\(4~6월\) 업무실적 발표](#) [41]
  - ◆ JBIC이 2006년 7월에 발표한 FY2006 1사분기의 주요 업무실적
- [인도, 대외원조 수혜 현황 및 전망 발표](#) [44]
  - ◆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외원조 수혜현황과 전망의 주요 내용
- [IBRD와 IFC, IDA앞 대규모 신규재원 공여](#) [50]
  - ◆ 세계은행 그룹은 IDA14의 소요재원 지원을 위해 9.5억 달러를 공여

### 자 료

- [JBIC의 대 인니 차관사업 발굴 체계](#) [52]
  - ◆ JBIC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실시되는 엔차관 사업발굴 체계
- [IBRD와 IDA의 주요 특성 비교](#) [56]
  - ◆ 세계은행의 양대 기관인 IBRD와 IDA의 주요 특성을 비교

이슈분석

##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유·무상 원조의 효과분석

### 【요약】

- 유·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원조 수혜와 함께 경제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 유·무상원조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유상원조가 투자를 증진시켜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 I. 우리나라의 원조 수혜 개관

### 1. 원조 수혜 규모 및 추이

-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9년까지 선진 원조공여국과 국제원조기구로부터 총 331억 달러의 원조를 수혜
- 양자간 원조는 118억 달러로 36%를 차지했으며, 다자간 원조는 213억 달러로 64%를 차지함
- 무상원조는 총 69억 달러로 21%를 차지했으며, 유상원조는 262억 달러로 79%를 차지함

우리나라에 대한 유·무상원조 금액<sup>1)</sup> 및 비중(1945~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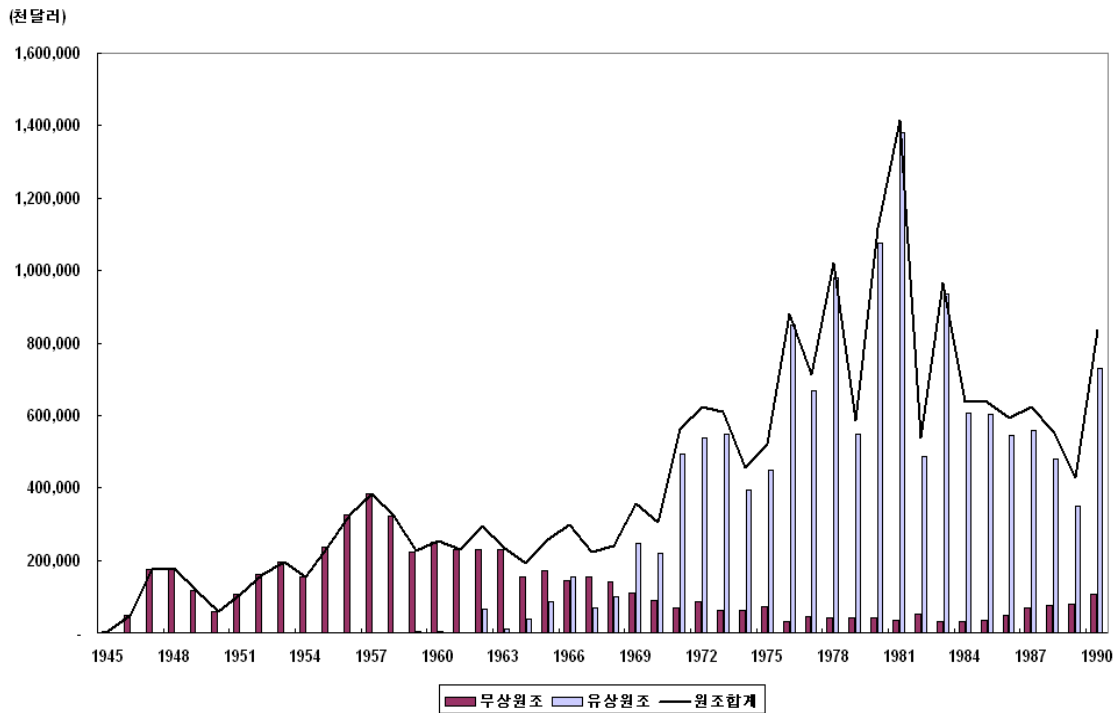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양자간	다자간	합계
유상	5,709 (21.8%)	20,527 (78.2%)	26,236 (100.0%)
무상	6,077 (88.2%)	815 (11.8%)	6,892 (100.0%)
합계	11,786 (35.6%)	21,342 (64.4%)	33,128 (100.0%)

1)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 양자간 ODA, 국제개발기구로부터의 증여 및 차관, 개발지원 성격의 기타공적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즉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기준

- 우리나라의 원조수혜 규모는 해방이후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원조는 해방 이후 1957년까지 빠르게 증가, 연간 3억 8천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유상원조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하여 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마련된 1980년대 초까지 증가세를 보임
- 유상원조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다자간 유상원조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 원조 수혜 추이



## 2. 공여주체별 원조수혜 현황

- 양자간 원조는 1999년까지 미국과 일본의 원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
- 양자간 유상원조는 미국이 36.5%, 일본이 56.4%이고, 양자간 무상원조는 미국이 64.2%이고 일본이 22.3%

□ 다자간 원조는 IBRD의 유상원조가 69%를 차지

- IBRD의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유상원조 규모가 컸기 때문
- 다자간 무상원조는 해방 이후 1960년까지 지원된 CRIK와 UNKRA에 의한 원조가 전체의 71%를 차지

공여주체별 수원현황(1945~1999년)

(단위 : 천달러, %)

구분	합계		유상		무상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양자간	미국	5,982,068	50.8	2,082,722	36.5	3,899,346	64.2
	일본	4,571,072	38.8	3,217,762	56.4	1,353,310	22.3
	독일	887,450	7.5	307,120	5.4	580,330	9.6
	사우디	96,604	0.8	96,604	1.7	-	-
	프랑스	96,850	0.8	-	-	96,850	1.6
	덴마크	10,345	0.1	2,775	0.0	7,570	0.1
	네덜란드	18,481	0.2	1,711	0.0	16,770	0.3
	캐나다	7,811	0.1	671	0.0	7,140	0.1
	오스트리아	52,660	0.4	-	-	52,660	0.9
	호주	14,010	0.1	-	-	14,010	0.2
	벨기에	10,150	0.1	-	-	10,150	0.2
	영국	8,290	0.1	-	-	8,290	0.1
	스웨덴	7,740	0.1	-	-	7,740	0.1
	기타	22,440	0.2	-	-	22,440	0.4
	소계	11,785,971	100.0	5,709,365	100.0	6,076,606	100.0
다자간	IBRD	14,818,852	69.4	14,818,852	72.19	-	-
	ADB	5,592,050	26.2	5,592,050	27.24	-	-
	ADB Fund	2,750	0.0	-	-	2,750	0.3
	CRIK	457,378	2.1	-	-	457,378	56.1
	UNKRA	121,840	0.6	-	-	121,840	14.9
	IDA	115,575	0.5	115,575	0.56	-	-
	WFP	98,500	0.5	-	-	98,500	12.1
	UNDP	9,120	0.3	-	-	69,120	8.5
	기타 UN기구	63,600	0.3	-	-	63,600	7.8
	기타	1,860	0.0	-	-	1,860	0.2
소계	21,341,525	100.0	20,526,477	100.00	815,048	100.0	
합계	33,127,496	-	26,235,842	-	6,891,654	-	

주 : UNKRA(UN의 대한경제부흥원조), CRIK(전후복구를 위한 민간구호원조)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감(1959년까지의 무상원조 통계)

OECD DAC 통계사이트(1960년 이후의 무상원조)

재정경제부(유상차관 통계, 도입년도 및 인출액기준)

## II.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유·무상 원조

### 1.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와 무상원조

#### 가.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

-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는 해방과 전쟁의 혼란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함
  -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내 생산력은 1940년도 수준으로 감소함
  - 또한 연평균 4%대의 낮은 저축률로 투자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며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한국전쟁 이후 대외원조로 경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 취약한 경제구조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지속됨
  - 해방 후 혼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민생활의 불안정, 자원의 낭비, 투기 성행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옴
  - 대외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해방 후 1961년까지 지원된 약 30억 달러 규모의 원조는 경제파탄을 막는데 기여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수요를 충당함

#### 경제개발 이전의 주요 경제지표

연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1인당 국민소득 (달러)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1954	5.6	30.0	70	24.2	243.3
1955	4.5	65.4	65	17.6	341.4
1957	7.6	20.7	74	21.5	442.1
1959	3.9	2.9	81	19.2	303.8
1960	1.2	11.3	79	31.8	343.5

주 : 물가상승률은 GDP디플레이터 기준

## 나. 경제개발 이전의 무상원조

□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는 전적으로 해외 무상원조에 의존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무상원조는 경제안정화에 기여함

- 1953~1960년까지 지원된 대외원조는 경상GDP의 평균 8%대를 차지하는 등 전후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러한 원조를 통해 1953~1957년 사이의 실질국민총생산은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1953년 이후 무상원조 규모 및 GDP대비 비중

(단위 : 천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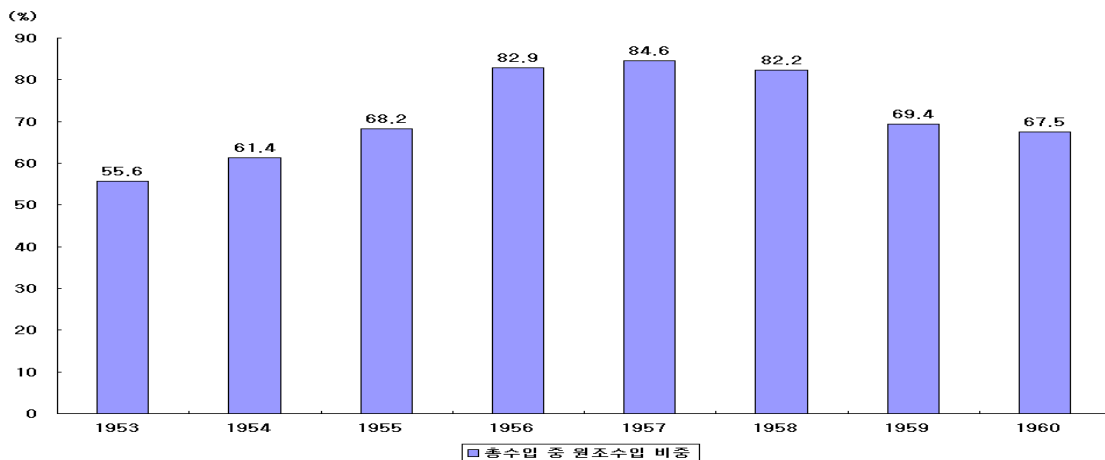
구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무상원조액	19.4	15.3	23.7	32.7	38.3	32.1	22.2	24.9
GDP대비 비중	7.3	4.2	10.3	10.8	9.8	7.8	5.1	6.4

주 : GDP대비 비중은 원화기준으로 단위환산은 IFS 기준 원/달러환율을 사용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원조는 수입의 70~80%를 차지하며 국내의 부족한 원자재 및 농산물 등을 공여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함
- 수출이 매우 부진해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필요자원은 거의 원조를 통해 수입되었음

### 1953년 이후 수입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무역협회

□ 그러나 이 시기의 무상원조는 소비 및 중간재로 활용되어 경제성장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 함

○ 무상원조는 주로 농산물 및 원자재로 이루어져 소비재원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1960년까지의 무상원조 중 원자재 및 농수산물 원조가 76% 이상을 차지함
-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 및 경제 인프라에 대한 원조와 장기적인 발전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지원은 각각 23%, 1% 수준에 머무름
- 산업 및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본재의 무상원조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함

1954년 이후 무상원조의 구성

(단위 : %)

구 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원자재 및 농수산물	92.5	83.7	81.6	70.4	71.8	70.8	74.3	
산업 및 경제인 프라	산업·통신·광업	5.6	4.2	6.4	8.0	9.3	9.1	12.1
	교통	1.4	10.9	10.4	16.9	12.4	13.4	5.0
	노동	0.0	0.0	0.0	0.0	0.0	0.0	0.0
	보건	0.4	0.9	0.3	1.3	1.4	1.4	1.8
	교육	0.0	0.1	0.3	1.1	1.2	1.7	1.9
	공공사업	0.0	0.0	0.1	0.2	0.5	0.7	0.8
	지역개발	0.0	0.1	0.4	1.1	1.8	0.9	1.7
	소 계	7.4	16.2	17.9	28.6	26.6	27.2	23.3
기술지원	0.0	0.1	0.4	0.9	1.4	1.4	1.6	
기 타	0.0	0.0	0.0	0.0	0.2	0.5	0.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USAID 원조 기준, PL480은 제외

□ 특히, 이 시기 무상원조(원자재 및 농수산물)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었으나 정부소비지출(국방, 일반행정 등)로 사용됨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함

○ 원자재 및 농수산물 무상원조는 정부의 민간부문 판매를 통해 대부분 정부세원으로 충원되어 정부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함

1953년 이후 정부세원과 원조세입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일반정부 경상수입(a)	4.99	7.25	12.24	23.52	31.51	34.51	38.01	48.69
무상원조를 통한 세입(b)	2.26	2.15	4.16	13.01	14.33	14.24	13.36	17.34
비중(b/a)	45	30	34	55	45	41	35	36

주 : 무상원조를 통한 세입은 국민계정상 해외로부터의 경상이전입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민간부분의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조 물품 판매수익은 정부수입의 절대적인 역할을 함
- 정부의 세입 중 90%가 정부의 소비지출(국방, 일반행정 등)로 사용되고 정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무상원조의 대부분은 투자자원화 되지 않음
- ※ 일반정부 경상지출 중 소비지출 비중 :  
94%(1953) → 87%(1955) → 93%(1957) → 86%(1960)
- 또한 무상원조 상품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매매차익 획득에 급급하여 이 자원을 생산적인 투자활동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상원조 자원이 경제개발의 기반형성에 기여하지 못함
- 이 시기 수입상품가격과 판매가격이 크게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무상원조 물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내었으나 초기에 큰 투자비용을 요구 되는 신규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음
- 결국 경제개발 이전의 무상원조는 단기적으로 국내 부족재원을 제공하여 경제파국을 막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무상원조의 성격, 정부와 기업의 후진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기반확립에는 기여하지 못함
- 단기적으로 무상원조는 부족한 소비재와 생산 원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전후 경제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간산업 및 SOC투자 등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함



- 결국 한국경제는 대규모 무상원조에도 불구하고 外援의존적 재정구조,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 소비재·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2. 경제개발과 유상원조

### 가. 경제개발 시기의 한국경제

- 1960년대 들어서 정부는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 1960년대초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주도형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었고, 산업기반 형성을 위한 대규모 SOC사업이 추진됨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경제개발계획으로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화가 급진전하게 됨**
  -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197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5%를 초과하는 성장세를 이룩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은 20% 수준의 급성장을 보임

#### 1962년 이후 경제성장률 및 제조업 성장률

연 도	경제성장률(%)	광공업 성장률(%)	제조업 성장률(%)
1963	9.1	14.2	16.1
1968	11.3	23.4	27.2
1970	8.8	19.6	19.9
1973	12.0	29.0	32.2
1975	5.9	13.4	13.4
1978	9.3	18.7	21.1
1980	-1.5	-1.3	-1.2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함

1960년대 이후 수출추이 및 수출품목 구조

구 분	1950~60년 간평균	1964	1968	1970	1972	1975	1978	1980
수출액 (백만달러)	25	119	455	835	1,624	5,081	12,711	17,505
수출증가율(%)	-2.6	37.2	42.2	34.2	52.1	13.9	26.5	16.3
1차상품 비중(%)	75.1	45.4	21.3	17.5	12.1	17.6	14.9	11.7
경공업 비중(%)	24.9	45.4	69.7	69.6	66.6	57.4	49.9	46.4
중화학 비중(%)		9.2	9.0	12.8	21.3	25.0	34.9	41.8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고정자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저축도 점차 확대되면서  
자립적 성장기반이 마련됨
  - 과거 10% 수준이던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이 1962~3년에는 30%, 1966년에는 60%에 육박하는 등 평균 20%대를 유지
  - 이에 따라 고정자본투자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 후반에 30%대로 확대되고 성장패턴도 소비위주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되며 자본축적을 이룸
  - 특히, 국내저축률도 빠르게 증가하여 투자재원의 국내저축비중이 확대되며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감

1962년 이후 국내 고정자본투자 및 민간저축 추이

(단위 : %)

구 분	1962	1963	1965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
고정 자본 투자	명목증가율	17.6	100.3	20.2	85.3	52.3	15.7	53.5	26.5	51.8
	실질증가율	28.7	27.3	27.1	59.5	37.4	1.0	26.2	8.9	34.4
	GDP대비 비율	12.9	18.2	15.2	21.9	26.2	27.0	25.6	29.4	31.6
민간 저축	명목증가율	24.5	166.9	-23.1	106.8	59.3	4.6	107.3	6.5	39.5
	실질증가율	5.2	106.4	-27.6	80.6	37.2	-9.5	80.5	-15.8	13.4
	GDP대비 비율	4.8	9.1	5.7	9.2	9.1	10.9	19.4	14.5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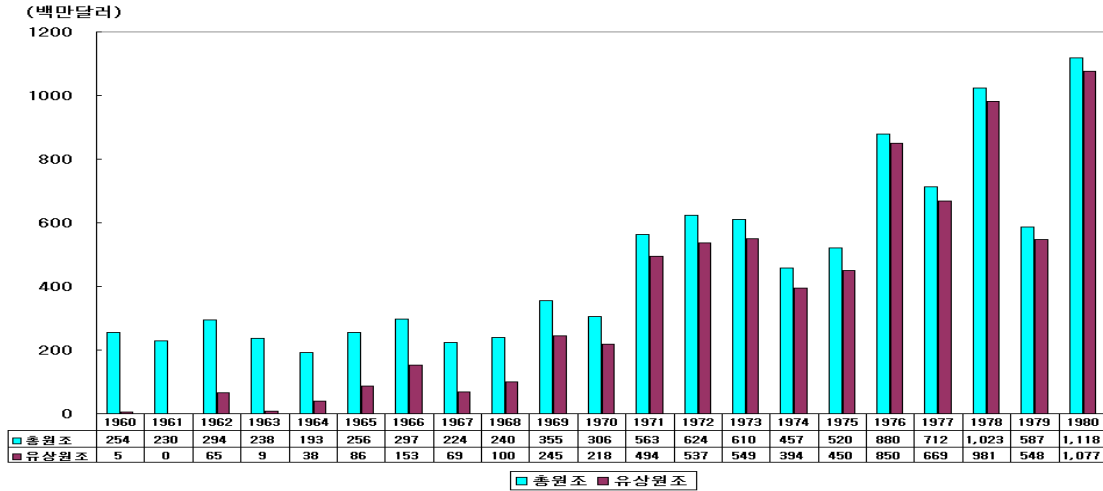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나. 경제개발 시기의 유상원조

- 경제개발 시기에 유상원조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설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립하게 함

- 총원조에서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초 20% 수준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90% 이상으로 증가

1960년 이후 총원조 및 유상원조 추이



- 1960년대 이후 유상원조는 고정자본투자에서 평균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족했던 투자재원의 보충역할을 충실하게 함
- 더욱이, 유상원조 중 개발투자사업으로 직접 투입되는 프로젝트 원조 비중이 80%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고정자본투자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1962년 이후 고정자본투자 중 유상원조 비중 추이

구분	1962	1965	1968	1970	1972	1973	1975	1980
유상원조 비중(%)	18.6	19.1	6.5	9.4	24.1	16.3	7.6	6.1
프로젝트 원조 비중(%)	18.6	16.9	3.2	4.7	14.5	11.1	5.9	5.2

- 특히, 유상원조는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인프라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립적 경제성장 기반 확립에 절대적인 역할을 함
- 경제개발 초기에 경제인프라에 유상원조가 집중되면서 경제인프라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원조금액의 50% 수준을 차지했으며 이후 경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30% 수준을 유지함
- 또한 공업생산 부분에도 30%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시설에 크게 기여하게 됨

- 반면, 상품 및 원자재에 지원된 금액의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양곡의 경우에는 미국의 PL480 지원의 영향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유상원조의 특징은 이전의 무상원조가 원자재, 농수산물 등 1차 상품 원조에 집중되어 경제인프라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점과 대비됨

1962년 이후 유상원조의 사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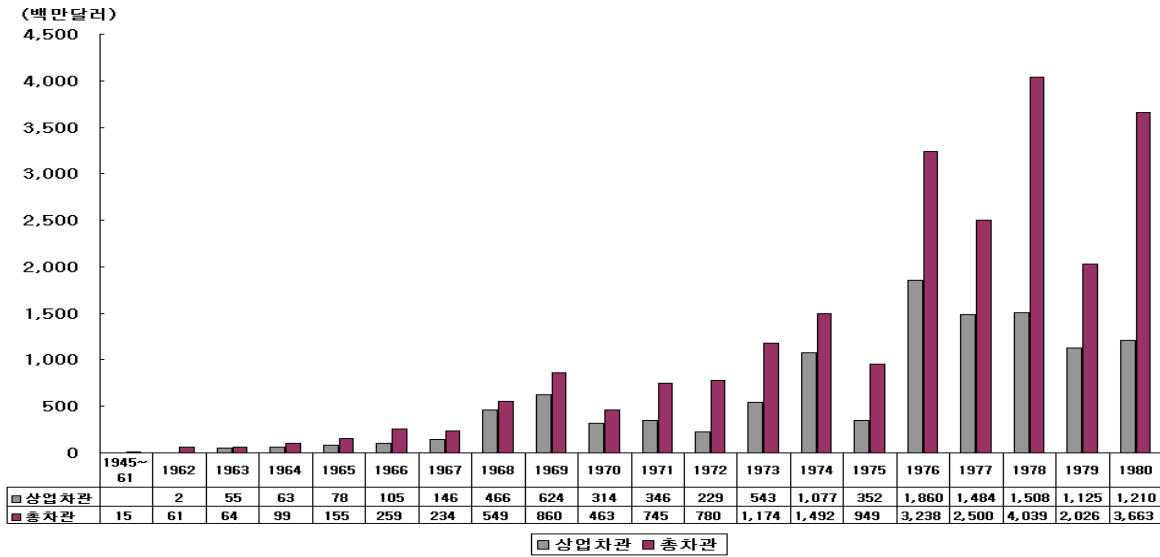
(단위 : %)

부문 (대분류)	부문 (중분류)	1960년 이전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경제인프라	교 통	0.0	17.1	19.5	15.5	17.8
	전 력	0.0	19.7	10.0	1.4	3.2
	통 신	41.1	18.5	0.5	2.6	9.4
	소 계	41.1	55.2	30.1	19.5	30.4
생 산	광공업 및 건설	58.9	13.4	18.4	27.7	23.4
	농림수산	0.0	24.5	0.4	7.8	6.7
	소 계	58.9	37.9	18.8	35.5	30.1
사회인프라	교 육	0.0	0.0	1.9	3.0	5.6
	보건인구	0.0	0.0	4.3	0.2	1.7
	주택수자원 등	0.0	0.9	4.9	7.0	8.5
	소 계	0.0	0.9	11.1	10.3	15.8
종합개발	새마을, 종합개발	0.0	1.0	5.7	4.5	10.7
	환경, 기타	0.0	0.0	0.4	0.2	0.6
	소 계	0.0	1.0	6.1	4.7	11.4
기 타	무역, 관광	0.0	0.0	0.0	1.6	0.0
	상품, 원자재	0.0	5.0	5.1	4.3	1.8
	양 곡	0.0	0.0	28.7	24.1	10.6
	소 계	0.0	5.0	33.8	30.0	12.4
유상원조 금액(백만 달러)		8.5	198.9	785.2	2,423.6	4,124.0

주 : 계약연도 기준

- 또한 유상원조의 도입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함에 따라 상업차관의 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외자확보에 도움을 줌
- 성공적인 공공차관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에 상업차관이 용이하게 도입됨
- 또한 공공차관에 대한 상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가신용을 인정받게 되어 상업차관의 도입이 용이하게 됨
- 안정적 외자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향후 원조를 벗어나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됨

### 1962년 이후 상업차관 도입 추이



- 결국 유상원조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를 해결해 줌으로써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유상원조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생산기반 마련과 경제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 축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또한 유상원조의 상환의무와 의무의 건실한 이행으로 수원국의 이미지 및 국가신용이 강화되며 기타 상업차관 도입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유상원조는 소비재로 사용된 무상원조와 다르게 투자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립적 경제성장 기반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함

### Ⅲ. 계량모형을 통한 유·무상 원조의 효과분석

#### 1.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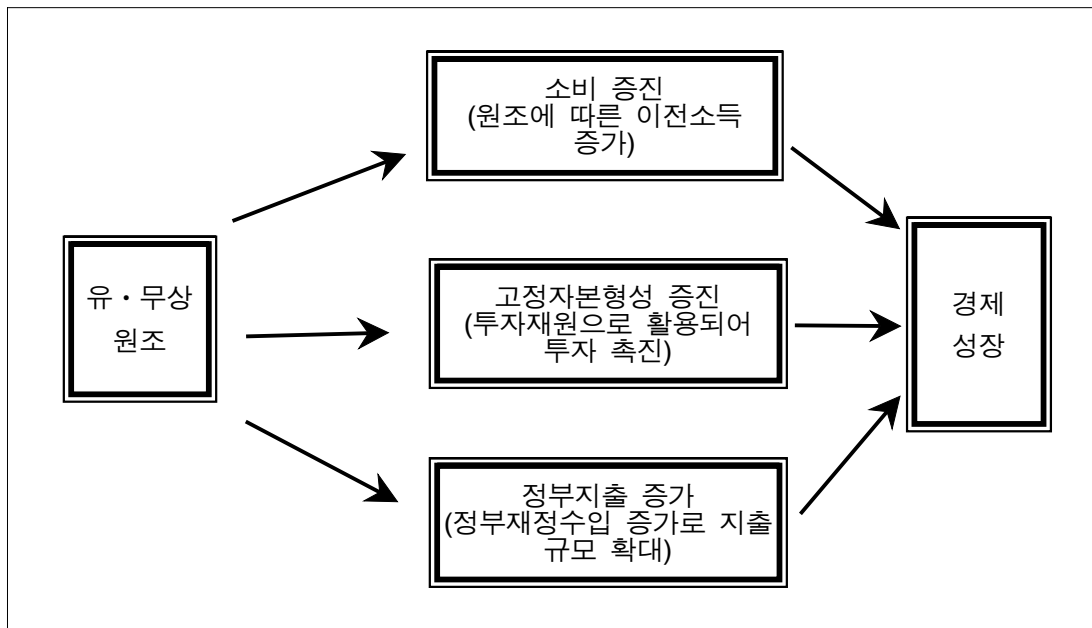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단기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유·무상 원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수준, 투자, 정부재정지출(대외부분 생략)이며 단기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단기성장모형

$\Delta Y_t \equiv \Delta C_t + \Delta I_t + \Delta G_t$	$\Delta Y$ : 국내총생산 변화량 $\Delta C$ : 민간소비 변화량 $\Delta I$ : 총투자 변화량 $\Delta G$ : 정부지출 변화량
--	--

- 본 모형에서는 유·무상원조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에 각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모형을 구성
- 즉, 원조에 따른 이전소득의 발생으로 소비재원이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원조에 따라 투자재원이 확대되어 고정자본형성이 활성화되고, 원조자금이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유입되어 정부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

유·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 이러한 가설에 따라 일반적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함수에 유·무상원조 변수를 적용할 경우,
  - 소비 수준은 전년도 경제성장 및 원조에 따른 소득증대에 의해서 결정
  - 투자는 투자재원(전기 국내저축, 해외 유·무상원조, 상업차관)과 전년도 경제성장에 의해서 결정
- ※ 일반적으로 투자함수는 이자율의 함수이나 경제개발 당시 이자율은 정부통제에 의해

서 왜곡되어 적정한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공급량을 통해 투자함수를 구성함

- 정부지출은 원조규모와 전기 경제성장에 따른 정책변화로 구성

### 부분별 모형

$\Delta C_t = c(\Delta Y_{t-1}, \Delta Grant_t, \Delta Loan_t) + \epsilon_t$ $\Delta I_t = i(\Delta S_{t-1}, \Delta Grant_t, \Delta Loan_t, \Delta CL_t, \Delta Y_{t-1}) + \epsilon_t$ $\Delta G_t = g(\Delta Y_{t-1}, \Delta Grant_t, \Delta Loan_t) + \epsilon_t$	$\Delta S$ : 국내저축 변화량, $\Delta Grant$ : 무상원조 변화량, $\Delta Loan$ : 유상원조 변화량, $\Delta CL$ : 상업차관 변화량
---	---

- 위에서 구성된 부분별 모형을 단기성장모형에 대입하여 하나의 식으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체계의 경제성장모형이 도출됨

### 경제성장 추정 모형

$\Delta Y_t = Constant + \alpha_1 \Delta Y_{t-1} + \alpha_2 \Delta S_{t-1} + \alpha_3 \Delta Grant_t + \alpha_4 \Delta Loan_t + \alpha_5 \Delta CL_t + \epsilon_t$
--

- 즉, 국내 경제성장은 전기의 경제성장, 전기의 저축량, 유·무상원조의 증가량, 상업차관의 증가량에 의해 결정됨
- 다만, 본 계량모형은 설명변수의 부호[정(正) 또는 부(否)]를 도출하여 설명변수의 피설명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개별 설명변수의 계수 값의 크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 ※ 분석기간 : 전후 1953년부터 1978년으로 했으나 모형의 변수에는 전기의 증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분석기간은 1955년부터임
- 분석기간을 1978년으로 한정된 것은 시계열 확보를 위해 1975년 이상으로 했으며 1979년 이후(1979~1980년)는 유가 파동 및 정치 불안에 따른 영향 때문에 제외함
- ※ 분석자료 :
  - 유상원조 : 공적개발금융(ODF) 기준(한국수출입은행 작성, 1953~1978)
  - 무상원조 : 경제통계연보 중 '외국원조수입' 기준(한국은행, 1953~1959), OECD DAC 통계(1960~1978)
  - 상업차관 : 재경부(한국외자도입 30년, 1953~1978)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총자본 형성, 총저축 : 경제통계연보 기준(1953~1978)

※ 분석방법 : 최종 경제성장모형과 부분별 성장모형에 대하여 각각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

## 2. 분석결과

### 가. 유·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유상원조는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상원조는 효과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표 1 참조)

- 효과의 유의성을 추정모형 계수의 t값으로 분석한 결과, 유상원조의 경우 유상원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분석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전기간 분석 및 1960년대 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상원조가 절정을 이룬 1950년대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기의 저축이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나타나 저축을 통한 국내 자본형성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은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업차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유·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설명변수	구분	1955~78	1955~60	1961~78
유상원조 변동	계수	<b>3.61</b>	-	<b>3.47</b>
	t값	<b>(2.93)</b>	-	<b>(2.31)</b>
무상원조 변동	계수	-8.65	<b>2.31</b>	-10.63
	t값	-1.26	<b>(4.48)</b>	-1.19
상업차관 변동	계수	2.01	-	2.14
	t값	1.39	-	1.22
전기 저축 변동	계수	<b>1.08</b>	-1.16	1.07
	t값	<b>(2.17)</b>	-2.69	1.77
전기 경제성장	계수	<b>0.78</b>	0.28	<b>0.78</b>
	t값	<b>(5.27)</b>	1.81	<b>(4.27)</b>
c	계수	41.83	<b>17.67</b>	54.75
	t값	0.77	<b>(3.72)</b>	0.68
R <sup>2</sup>		0.98	0.96	0.98

주: ( )의 t값은 95% 유의수준에서 해당 계수 값이 유의미함을 나타냄. 1955~60년의 기간분석은 시계열이 짧아 모형의 의미는 없으나 무상원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유상원조 및 상업차관은 분석에서 제외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기여한 부분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상원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빈국 시기 또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는 무상원조의 역할도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 유·무상원조가 투자, 소비,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

□ 유상원조의 경우 투자에 정(+)<sup>1</sup>의 효과를 보인 반면, 무상원조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표 2 참조)

- 유상원조, 저축, 상업차관은 예상한 대로 투자 증진에 정(+)<sup>1</sup>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재원의 확대가 전반적으로 투자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가 전 기간 및 무상원조가 활성화되었던 1950년대 분석에서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무상원조가 투자재원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표 2> 유·무상원조가 투자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설명변수	구분	1955~78	1955~60	1961~78
유상원조 변동	계수	<b>1.78</b>	-	<b>1.73</b>
	t값	<b>(2.89)</b>	-	<b>(2.29)</b>
무상원조 변동	계수	-3.64	0.27	-4.43
	t값	-1.06	0.51	-0.98
상업차관 변동	계수	<b>3.66</b>	-	<b>3.71</b>
	t값	<b>(5.06)</b>	-	<b>(4.21)</b>
전기 저축 변동	계수	<b>1.23</b>	-0.87	<b>1.23</b>
	t값	<b>(4.92)</b>	-2.00	<b>(4.04)</b>
전기 경제성장	계수	<b>-0.18</b>	0.14	-0.18
	t값	<b>(-2.37)</b>	0.95	-1.98
c	계수	24.80	-0.87	31.82
	t값	0.92	-0.18	0.79
R <sup>2</sup>		0.97	0.75	0.97

주: ( )의 t값은 95% 유의수준에서 해당 계수 값이 유의미함을 나타냄. 1955~60년의 기간분석은 시계열이 짧아 모형의 의미는 없으나 무상원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유상원조 및 상업차관은 분석에서 제외함

- 유·무상원조는 전 기간 분석 및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시기에 있어서 공히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무상원조의 시기(1950년대)를 따로 추정한 결과에서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개발 이전 시기에 무상원조가 민간소비 증진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3> 유·무상원조가 민간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설명변수	구분	1955~78	1955~60	1961~78
유상원조 변동	계수	1.16	-	1.14
	t값	1.22	-	1.00
무상원조 변동	계수	3.12	<b>3.04</b>	3.26
	t값	0.45	<b>(6.19)</b>	0.37
전기 경제성장	계수	<b>0.73</b>	0.05	<b>0.72</b>
	t값	<b>(15.51)</b>	0.31	<b>(12.22)</b>
c	계수	31.44	<b>17.53</b>	49.74
	t값	0.56	<b>(3.60)</b>	0.60
R <sup>2</sup>		0.94	0.93	0.92

주: ( )의 t값은 95% 유의수준에서 해당 계수 값이 유의미함을 나타냄. 1955~60년의 기간분석은 시계열이 짧아 모형의 의미는 없으나 무상원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유상원조는 분석에서 제외함

- 유·무상원조는 정부지출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전기 경제성장이 정부지출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표 4> 유·무상원조가 정부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설명변수	구분	1955~78	1955~60	1961~78
유상원조 변동	계수	0.12	-	0.11
	t값	0.89	-	0.72
무상원조 변동	계수	-1.01	-0.08	-1.18
	t값	-1.02	-0.50	-0.95
전기 경제성장	계수	<b>0.16</b>	0.01	<b>0.16</b>
	t값	<b>(23.56)</b>	0.27	<b>(19.13)</b>
c	계수	-4.37	<b>4.62</b>	-7.92
	t값	-0.55	<b>(3.08)</b>	-0.68
R <sup>2</sup>		0.97	0.10	0.97

주: ( )의 t값은 95% 유의수준에서 해당 계수 값이 유의미함을 나타냄. 1955~60년의 기간분석은 시계열이 짧아 모형의 의미는 없으나 무상원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유상원조는 분석에서 제외함

- 이러한 결과는 원조가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자원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부지출 결정은 원조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함
- 요컨대, 유·무상원조가 투자·소비·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유·무상원조의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 유상원조는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 무상원조의 경우 소비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재확인 함
  - 결국 무상원조는 최빈국 시절 우리나라의 필요 소비재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파국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 유상원조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자립적 경제성장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 IV.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의 경제개발 및 원조수혜 경험을 통해 볼 때,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에 비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 계량모형 분석 결과, 유상원조는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무상원조는 최빈국 시기에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성장을 유도하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무상원조의 방식보다는 유상원조가 효과적임을 보여 줌
-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후발 개도국들에게 유상원조를 통한 경제개발의 성공 모델로 활용가능
  -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상원조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후발 개도국에게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모델과 경험은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 원조형태 결정, 원조재원 활용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수원국과 원조공여국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유·무상 원조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원조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무상원조는 기초적인 물자지원이 필요한 경제개발 이전단계의 최빈국에게 소비재원을 직접 공급하여 국가경제를 유지하고 빈곤층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 유상원조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개도국에 대해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으로서 굳건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립하는 데 효과적

작 성 : 이 재 우, [jaewoolee@koreaexim.go.kr](mailto:jaewoolee@koreaexim.go.kr)

정 리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주요토픽

## 우리나라의 ODA 공여실적 추이 분석(1987~2005)

### 【요약】

- 총 19년간(1987년~2005년)의 우리나라 ODA 공여실적에 대한 최초의 분석자료로서 향후 우리나라 ODA 실증분석에 많은 활용을 기대
  - 우리나라 ODA 공여규모는 '87년 2천 4백만 달러에서 '05년 7억 4천만 달러(잠정치)로 성장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09%, 1인당 ODA는 15달러에 불과
  - 지난 19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대 다자간 비율은 61%:39%, 양자간 원조의 유상 대 무상 비율은 48%:52%(승인 기준으로는 67%:33%)

### 1. 우리나라 ODA 공여의 역사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ODA 공여는 1980년 중반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았고 소수의 정부부처에 의해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 '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과 협력하여 개도국 연수생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ODA 공여로 알려짐
  - 이후 개도국 전문가 파견('67년), 국산기자재 제공('77년), KDI의 국제개발 연찬사업('82년,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 건설부의 무상건설 용역('84년), 노동부의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84년) 등의 무상원조를 지원
- 198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경상수지 흑자를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ODA 공여 필요성이 제기됨
  -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어 ODA 공여의 필요성이 제기
  - 또한, '86년부터 시작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협력을 통한 개도국과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7년 양자간 유상원조 전담기금인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을 설립하여 양자간 원조의 기틀을 마련
  -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와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수출비중 확대를 위해 EDCF를 설립
- 1990년대는 무상원조 전담기관 설립과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규모 확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91년 4월에는 건설부, 과기처 등 정부 각 소관부처별로 실시하던 무상원조를 통합하여 외무부 산하에 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
  - '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원조 공여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2000년대는 중동지역 전쟁과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2001년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 발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
  -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으로 다자간 원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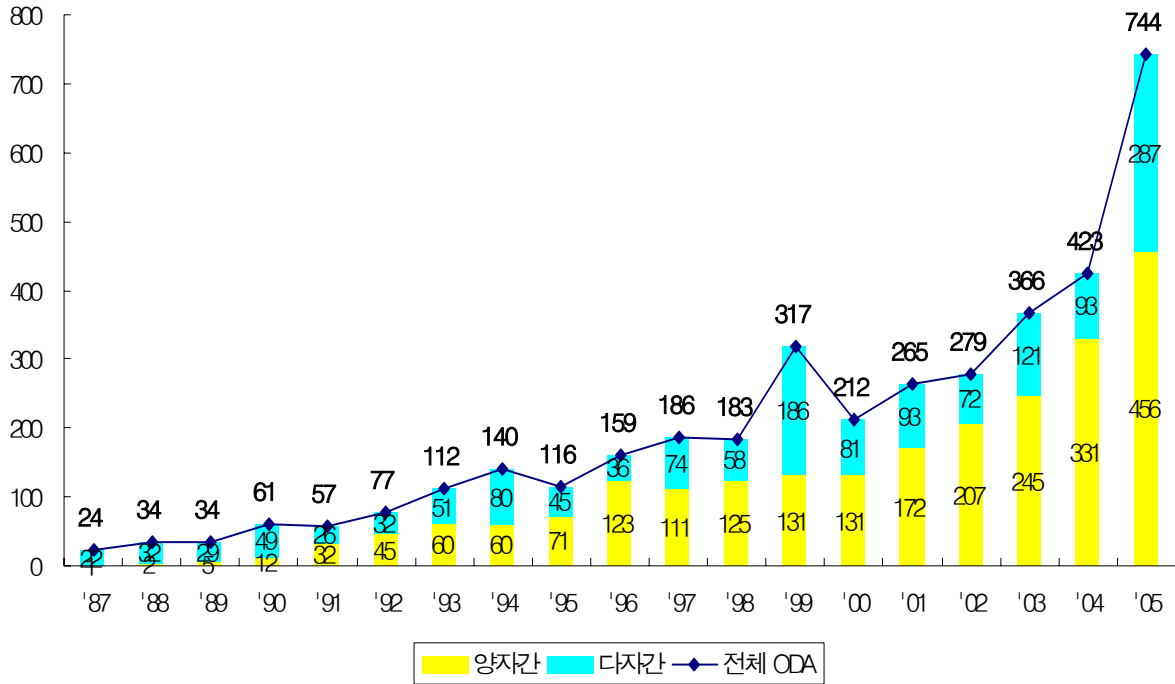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공여 관련 주요 사건

구분	연도	내 용	주무부처
'60년대	'63	USAID과 협력하여 개도국 연수생 초청	외무부, 과기처
	'69	프로젝트 기술공여 시작	과학기술처
'70년대	'75	기능공 초청 훈련 시작	노동부
	'77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80년대	'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F) 시작	KDI
	'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재무부
'90년대	'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외무부 산하
	'96	OECD 가입	외교부, 재경부
'00년대	'03	이라크 전 발발	외교부
	'04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외교부
	'05	IDB 가입	재경부

## 2. 우리나라의 ODA 공여 추이

### 가. ODA 절대규모 추이

우리나라의 ODA 규모 추이(순지출 기준)



- 1987년 EDCF 설립으로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초창기 실적은 미미
  -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연간 ODA가 2~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다자간 원조가 90% 내외를 차지
- 1990년대 들어 ODA 공여규모는 차츰 늘어나다가 '96년 OECD 가입 이후 더욱 확대되어 '99년에는 3억 달러를 상회
  - '91년 KOICA 출범으로 양자간 원조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
  - '93년에는 양자간 유상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대폭 확대로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
  - '95년에는 다자간 원조의 감소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96년에는 양자간 유상원조의 대폭 증가로 전체 ODA가 증가



- '97~'98년은 외환위기 영향으로 양자간 원조가 위축되었으나 다자간 원조 증가로 전체 ODA는 1억 8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
- '99년에는 세계은행에 대한 출자·출연 확대로 다자간 원조가 크게 늘어나 전체 ODA 규모는 3억 달러를 돌파
- **2000년대 초반에는 다자간 원조의 급감으로 전체 ODA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00년에는 다자간 원조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전년대비 57% 감소)하면서 전체 ODA는 33% 감소
  - 2001년부터 2002년 사이는 다자간 원조가 담보상태였으나 양자간 유상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ODA의 성장세를 견인
  -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중동지역 전쟁과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양자간 무상원조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ODA가 크게 확대됨
    -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2003년에 '99년 수준(3억 달러)을 회복하였고 2004년에는 4억 달러를 돌파
    - 2005년에는 양자간 원조 보다 다자간 원조가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ODA는 7억 달러(잠정치)를 돌파

## 나. ODA의 상대적인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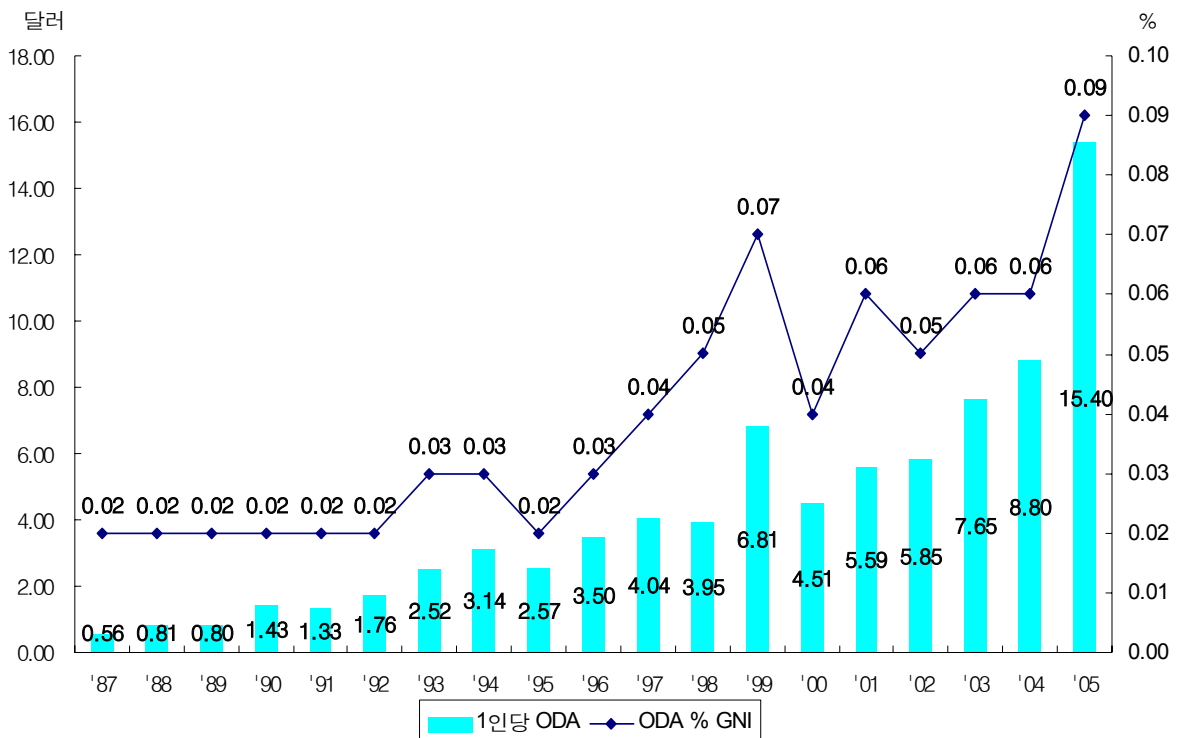
### 【ODA/GNI 비율】

- 국민총소득에 대한 원조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 ODA/GNI 비율은 '95년까지 0.02%대의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96년 OECD 가입이후 차츰 상승하기 시작하여 '99년에는 다자간 원조의 대폭 증가로 0.07%를 기록
  - '99년에 ODA/GNI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다자간 원조의 대폭 증가이외에 IMF 외환위기에 따른 GNI의 급락도 한 요인으로 작용



- 2000년에는 다자간 원조 급감에 따라 0.04%까지 줄어들었다가 2001년부터는 양자간 원조가 차츰 늘어나면서 2004년까지 0.05~0.06% 수준을 유지
- 2005년에는 다자간 원조 확대로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인 0.09%(잠정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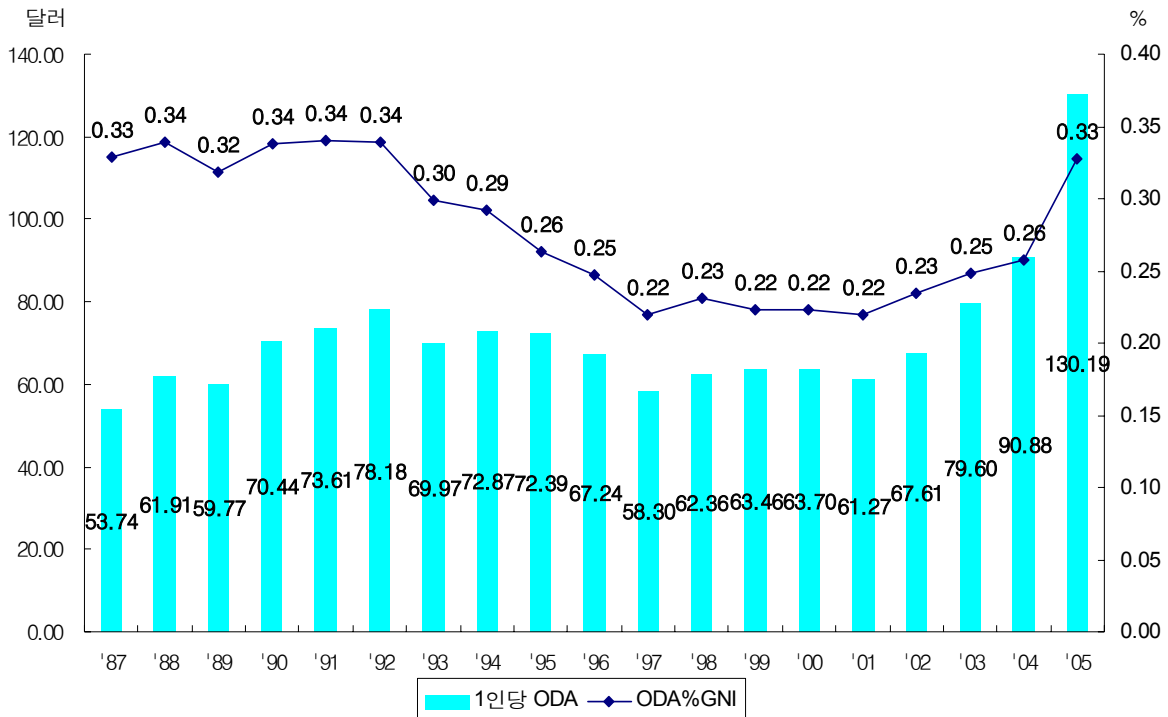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관련 지표 추이(순지출 기준)



□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선진 원조공여국의 1/4 수준에 불과

- 2005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UN의 권고 목표치(0.7%)와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평균치(0.33%)에는 크게 못 미침
- 지난 19년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의 평균은 0.05%인 반면, DAC 회원국 평균치의 평균은 0.27%

DAC 회원국의 ODA 관련지표 추이(순지출 기준)



### 【1인당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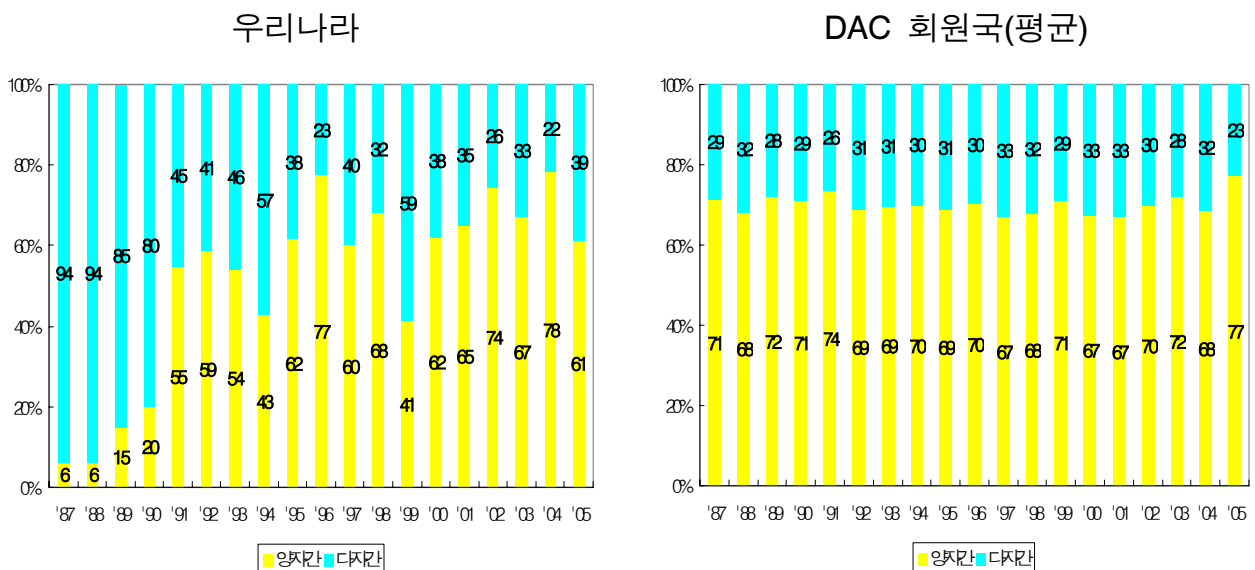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부담하는 ODA 금액인 **1인당 ODA**도 ODA 규모 증가와 함께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 1인당 ODA는 '89년까지 1달러에도 못 미치다가 '90년에는 1.43달러를 기록하며 차츰 상승하기 시작하여 다자간 원조가 대폭 늘어난 '99년에는 6달러를 돌파
  - 2000년에는 다자간 원조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옴에 따라 4.51달러로 줄어들었으나 2001년부터는 양자간 원조 확대에 따라 매년 1~2달러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8.80달러**를 기록
  - **2005년에는** 다자간 원조 확대에 따라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인 **15.4달러(잠정치)**를 기록
- 그러나, 우리나라 1인당 ODA는 DAC 회원국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

- 2005년 1인당 ODA는 사상 최고치인 15.4달러를 기록하였으나 DAC 회원국의 평균치(130.19달러)에 비하면 1/8 내지 1/9 수준
- 지난 19년간 우리나라 1인당 ODA의 평균은 4.4달러인 반면, DAC 회원국 평균치의 평균은 71.6달러

### 다. ODA의 구성

- 우리나라 ODA는 양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자간 원조 보다는 양자간 원조 중심으로 배분되어 왔음
- '90년 이전까지는 다자간 원조가 전체 ODA의 80~90%를 차지하며 우위를 점하였으나, '91년 이후 양자간 원조가 확대되면서 다자간 원조를 추월
  - 다만, '94년과 '99년에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증가로 다자간 원조가 양자간 원조를 소폭 상회
- 지난 19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대 다자간 비율은 약 61% : 39%로 양자간 원조가 다자간 원조 보다 양적인 우위를 점함
  - 그러나 DAC 회원국의 양자간 대 다자간 비율(7:3)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 규모는 다자간 원조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

#### ODA의 양자간/다자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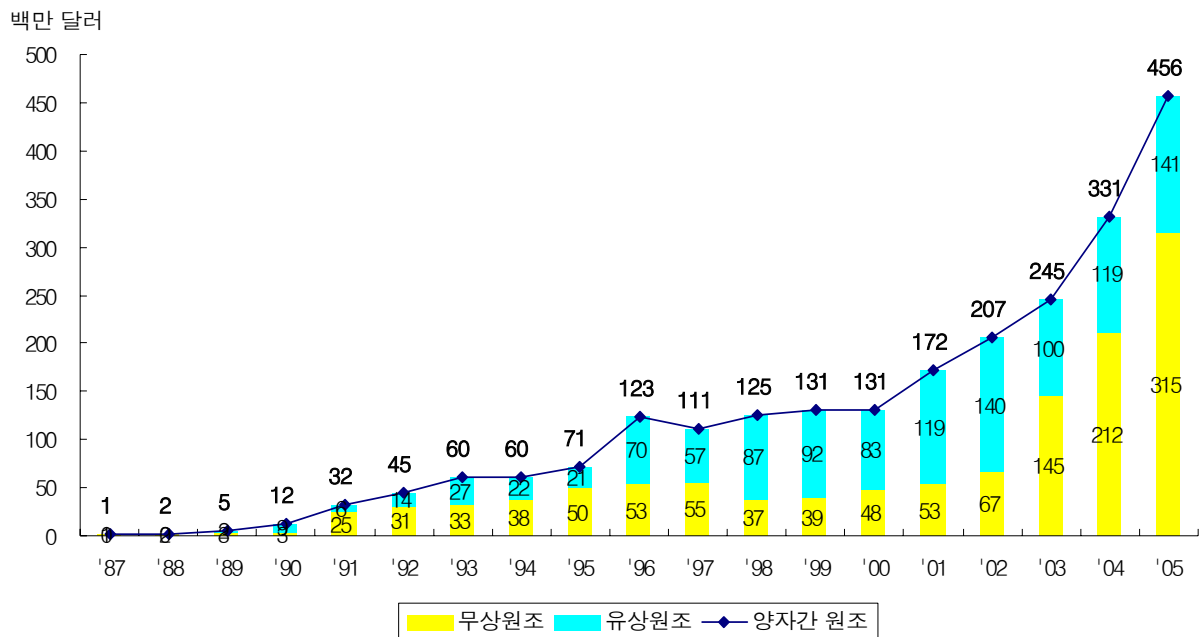
### 3.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

#### 가. 양자간 원조의 규모 및 구성

##### 【양자간 원조의 규모】

- '90년대 들어 차츰 늘어나기 시작한 양자간 원조는 '97년 외환위기사 잠시 주춤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96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02년에는 2억 달러, '04년에는 3억 달러, '05년에는 4억 달러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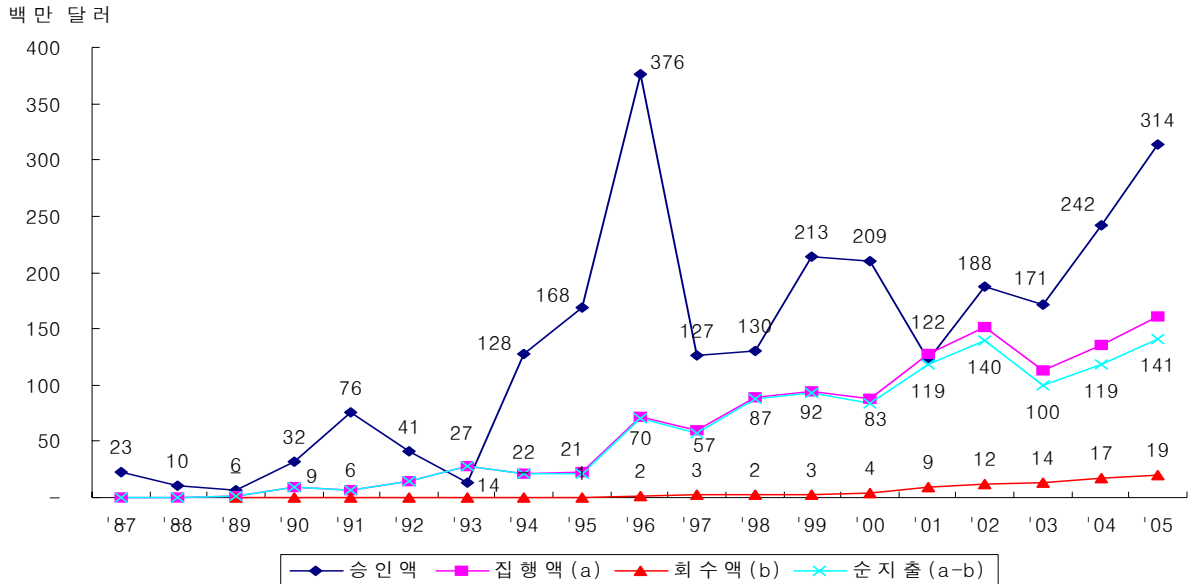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 추이(순지출 기준)



- 양자간 유상원조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원조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점해 오다가 2003년 이후에는 유상차관의 집행액 부진으로 다소 저조
- 양자간 유상원조는 차관 집행액 증가로 '96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후 2002년까지 증가세가 지속
- 그러나, 2003~2005년에는 차관 집행액 저조와 회수액 증가로 유상원조 규모는 2002년 수준에도 못 미침

- 이 시기의 차관 집행액 저조는 '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인한 5년간의 정부출연금 중단에 따라 EDCF 재원이 부족하여 차관 승인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

우리나라의 유상차관 공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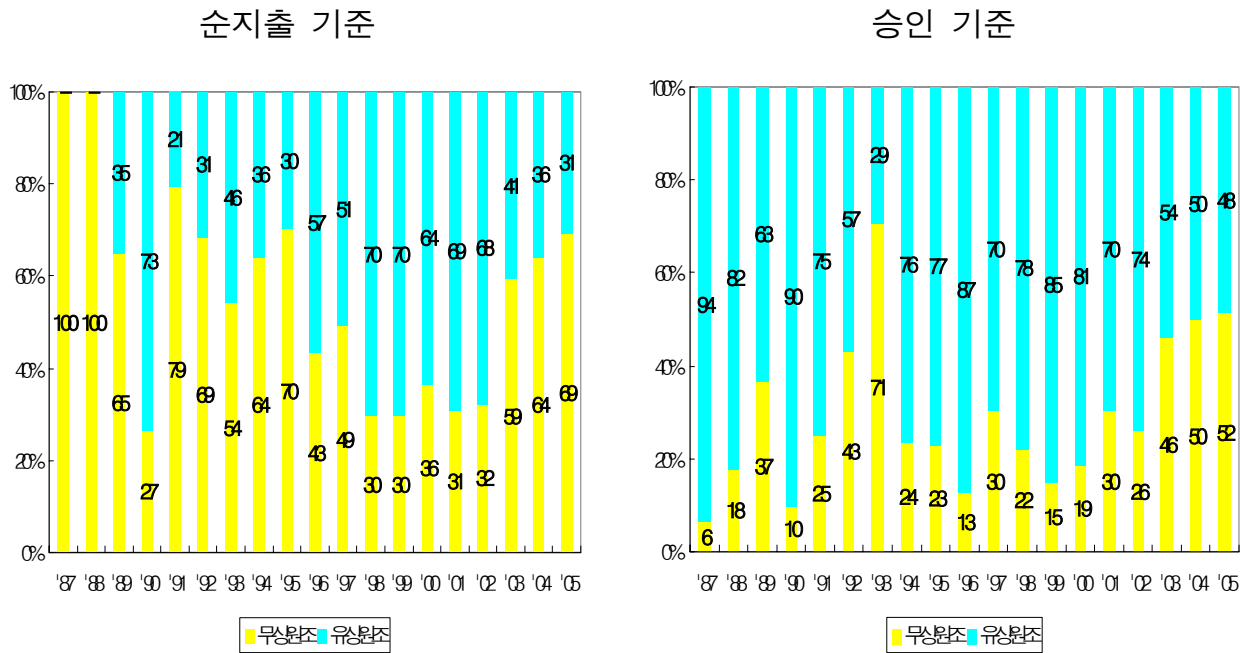
□ 반면, 양자간 무상원조는 대체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으나 2003년 이후 전쟁과 자연재해 등 예외적인 사건 발생으로 크게 증가(예외적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현재 실적의 절반 수준에 불과)

- 무상원조는 '91년 KOICA 설립으로 본격화되어 25백만 달러를 기록한 후 '97년까지 점차 상승하여 55백만 달러까지 늘어남
- 그 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98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01년까지는 예년 수준('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었음
- '02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소폭 증가하여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03년부터는 전쟁과 쓰나미 등 예외적인 사건 발생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03년에는 1억 달러, '04년에는 2억 달러, '05년에는 3억 달러를 초과
- 2003년부터의 무상원조 확대는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10), 이라크 전쟁(2003.3),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2004.12) 발생 등이 촉발
- 전쟁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42~50%가 투입되었으며, 쓰나미 최대피해국인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는 2005년에 무상원조의 7.5%가 지원됨

### 【양자간 원조의 구성】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유·무상 비율은 시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전 기간을 놓고 보면 유상원조가 우세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유·무상 비율 추이



○ 시기별로 보면, 양자간 원조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는 유상원조가 대체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3년간은 예외적인 사건 발생으로 무상원조가 우세

- 유상원조가 크게 증가한 기간(1996년~2002년)에는 유상원조가 순지출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의 66%를 차지(승인 기준으로는 80%를 차지)
- 예외적 사건 발생으로 무상원조가 증가한 기간(2003년~2005년)에는 무상원조가 순지출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의 65%를 차지(승인 기준으로는 50%를 차지)

○ 지난 19년간의 양자간 원조 누계치를 보면, 순지출 기준으로는 유·무상원조가 비슷한 수준이나, 승인 기준으로는 유상원조가 월등히 우세

2)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은 '지출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순지출액)을 ODA로 집계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는 회수액이 없으므로 지출액이 모두 ODA로 계상되나 유상원조는 차관 집행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이 ODA로 계상됨

- 유상차관의 경우, 승인액은 현재의 원조공여국의 원조공여 의지와 미래의 공여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고, 순지출액은 과거의 승인액이 7~10년에 걸쳐 집행되고 10~20년에 걸쳐 회수되면서 나타나는 자금흐름의 모습임
- 즉, 유상차관의 승인액은 현재의 원조자금 흐름이 아닌 현재의 원조공여 의지와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인 반면, 유상차관의 순지출액은 현재의 원조공여 의지와 경향 보다는 현재 시점의 원조자금의 실제 흐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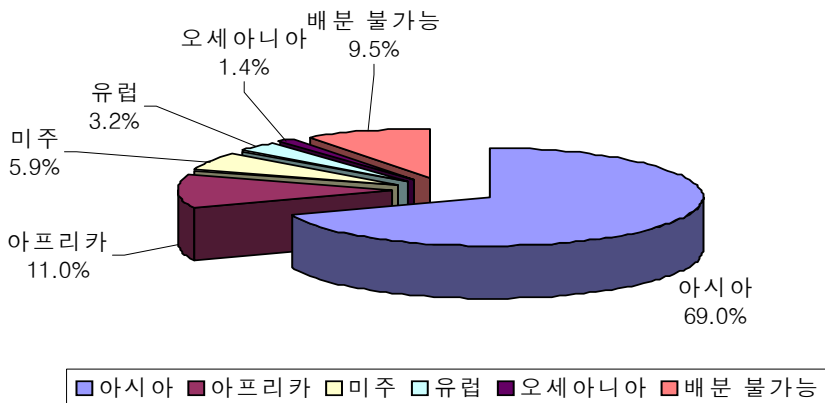
- 순지출 기준으로 유상 대 무상 비율은 48% : 52%이나, 승인 기준으로는 67% : 33%를 기록

## 나. 양자간 원조의 배분

### 【지역별】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왔음
- 지난 18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의 69%가 아시아 지역에 지원됨
  - 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38%, 남부 및 중앙아시아 23%, 중동 8% 등으로 구성되며,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는 아프리카(11%), 미주(6%), 유럽(3%) 순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배분('87~'04)



- 양자간 원조를 유·무상으로 구분해 보더라도, 지난 18년간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됨
  - 유상원조는 아시아 80.3%, 아프리카 9.7%, 유럽 5.4%, 중남미 4.1% 등
  - 무상원조는 아시아 55.8%, 아프리카 10.7%, 중남미 7.5%, 오세아니아 2.1% 등

### 【수원국별】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
- 지난 18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는 중국(11%), 베트남(9%), 인도네시아(8%), 스리랑카(6%) 순으로 지원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국가별' 배분('87~'04)

순위	유상원조		무상원조		합계(양자간 원조)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중국	15.7%	이라크	12.2%	중국	11.0%
2	인도네시아	12.5%	베트남	6.2%	베트남	8.9%
3	베트남	11.2%	중국	5.6%	인도네시아	8.4%
4	스리랑카	9.9%	아프가니스탄	5.1%	스리랑카	6.1%
5	미얀마	5.6%	인도네시아	3.8%	이라크	6.1%
6	방글라데시	5.6%	필리핀	3.1%	방글라데시	3.6%
7	캄보디아	5.0%	스리랑카	1.8%	미얀마	3.5%
8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1.8%	캄보디아	3.3%
9	크로아티아	3.6%	네팔	1.5%	우즈베키스탄	2.9%
10	가나	3.2%	페루	1.4%	아프가니스탄	2.6%

□ 양자간 원조를 유·무상 원조로 구분하여 보면, 유·무상 지원규모 상위 10개국에 아시아 4개국이 공통으로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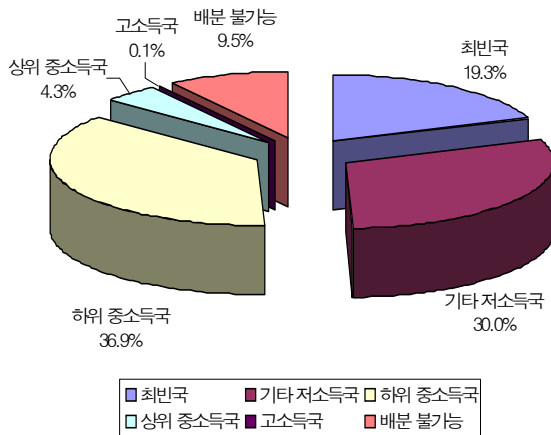
○ 순위는 다소 상이하나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이 공통

【소득그룹별】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주로 하위 중소득국(LMIC)과 기타 저소득국(OLIC)에 집중됨

○ 지난 18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는 하위 중소득국(37%), 기타 저소득국(30%), 최빈국(19%), 상위 중소득국(4%) 순으로 배분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87~'04)



구분	유상	무상	합계
최빈국	18.9%	18.4%	19.3%
기타 저소득국	27.2%	14.1%	30.0%
하위 중소득국	47.3%	40.7%	36.9%
상위 중소득국	6.6%	3.4%	4.3%
기타	-	0.2%	0.1%
배분 불가능	-	23.0%	9.5%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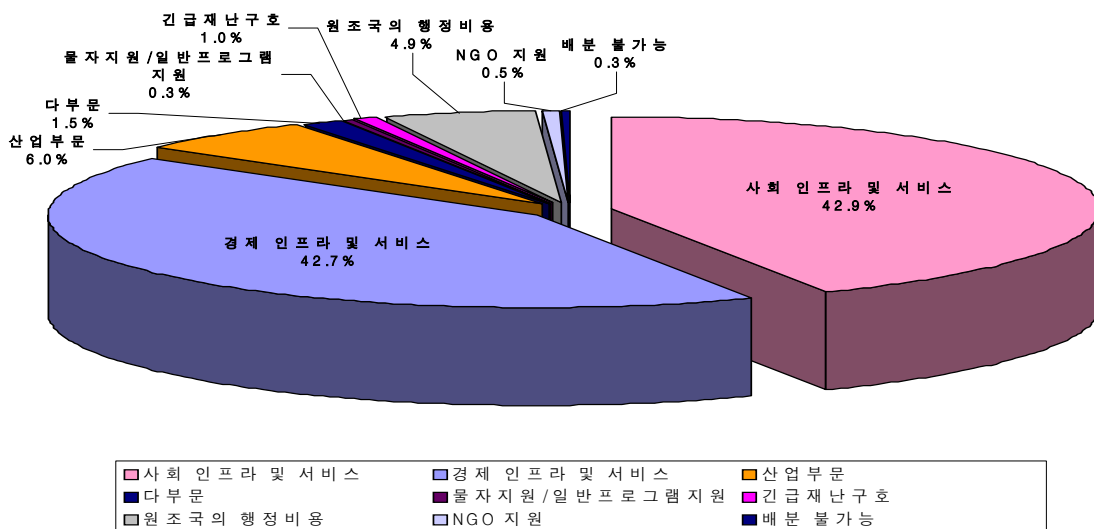
□ 양자간 원조를 유·무상 원조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유·무상 모두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높음

- 유상원조는 하위 중소득국, 기타 저소득국, 최빈국, 상위 중소득국 순
- 무상원조는 하위 중소득국,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순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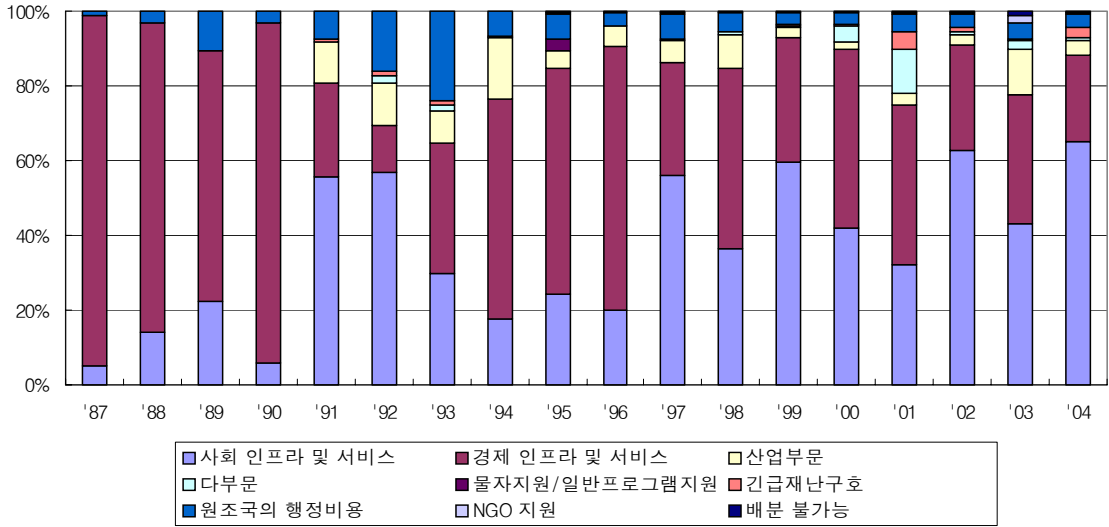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을 주로 지원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부문별' 배분('87~'04)



- 지난 18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양자간 원조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비슷한 지원비중을 보임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는 보건(12.5%), 교육(12.3%), 식수공급 및 위생(8%), 공공행정 및 시민단체(6.2%) 등으로 구성
  -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통 및 보관(20.9%), 통신(12.2%), 에너지(9.3%) 등으로 구성
- 지난 18년간 추이를 보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97년부터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음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부문별' 지원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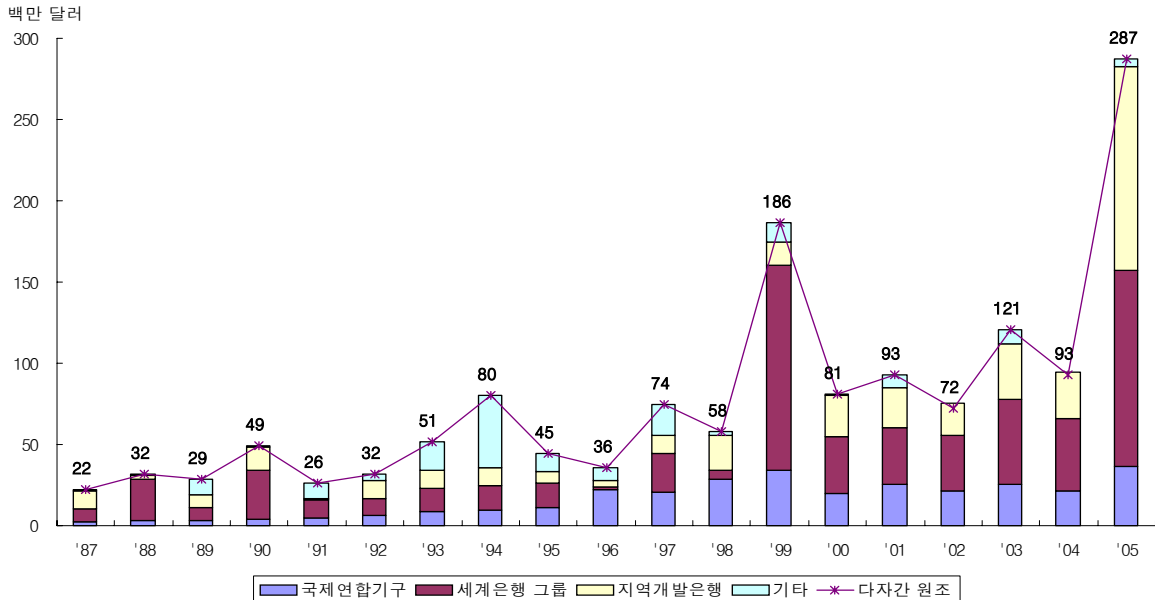


4.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

가. 다자간 원조의 규모 및 구성

【다자간 원조의 규모】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 추이



□ 우리나라의 연간 다자간원조 규모는 '98년까지 연간 1억 달러에도 못 미쳤으나 '99년에는 1억 8,614만 달러를 기록

- '99년에는 IDA(79백만 달러) 및 IBRD(47백만 달러)에 대한 출연금 증가로 다자간 원조가 크게 증가
-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은행에 대한 출연금 감소로 크게 줄어들다가 2003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0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00년에는 IDA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다자간 원조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여 2002년까지 큰 변화없이 8천만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함
- 2003년에는 IDA(52백만 달러)와 AfDF(14백만 달러)에 대한 출연금이 늘어나면서 다자간 원조가 1억 달러를 다시 돌파
-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IDA14 재원보충 참여와 IDB 가입에 따른 IDA(120백만 달러)와 IDB 그룹(81백만 달러) 앞 출자·출연금 증가로 다자간 원조는 2억 9천만 달러에 육박**

### 【다자간 원조의 구성】

-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및 출자가 대부분을 차지
- 다자간 원조는 (i)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및 출자, (ii)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등 크게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지난 19년간 다자간 원조의 지출액 누계치(15.7억 달러)에서 약 98%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및 출자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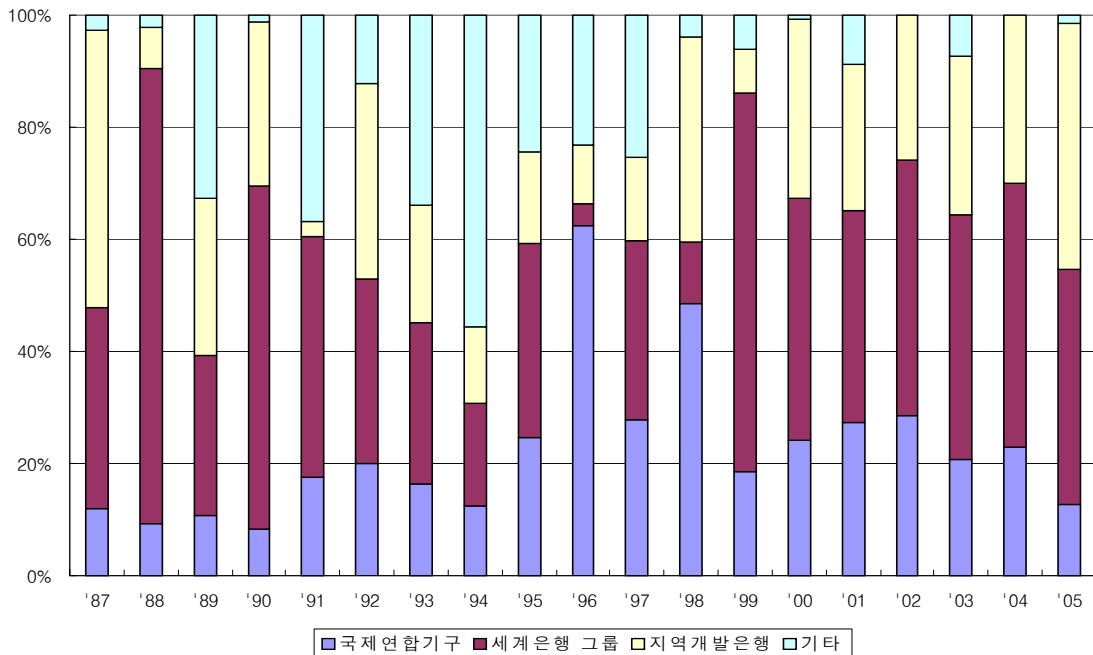
### 나. 다자간 원조의 배분

#### 【국제기구 그룹별】

- 우리나라 다자간원조는 세계은행 그룹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지난 19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 그룹(42%), 지역개발은행(26%), 국제연합기구(21%) 순으로 배분

- 최근 4년간은 UN기구에 대한 지원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ADB · AfDB · IDB 등(특별기금 포함)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UN기구 지원비중 : 30%('02년) → 21%('03년) → 23%('04년) → 13%('05년)
  - 지역개발은행 지원비중 : 27%('02년) → 28%('03년) → 31%('04년) → 44%('05년)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의 '국제기구 그룹별' 배분



### 【국제기구별】

-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 중 양허성 자금지원을 전담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sup>3)</sup>에 집중되어 왔음
- 지난 19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는 IDA, AfDF, ADF, IDB S.F.(특별기금) 등 4개 기구에 59%가 배분됨
  - IDA에 대한 지원비중(35.3%)이 가장 높고 ADF(11.1%)와 AfDF(7.1%)가 그 다음
  - IBRD, AfDB, ADB, IDB 등 일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비중 합계는 8% 내외에 불과 → IBRD(5.7%), ADB(1.8%), AfDB(0.6%), IDB(0.2%)

3)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국제개발금융기구로는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AfDB의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DB의 아시아개발기금(ADF), IDB의 다자간투자기금(MIF) 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의 '국제기구별' 배분('87~'05)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제기구	IDA	ADF	AfDF	IBRD	IDB S.F.	IMF (PRGF)	UNDP	ADB	UNICEF	UNHCR
비 중	35.3%	11.1%	7.1%	5.7%	5.5%	3.4%	3.4%	1.8%	1.6%	1.0%

- 최근 4년간은 IDA, AfDF, ADF, IDB S.F. 등 4개 기구의 재원보충<sup>4)</sup>시 우리나라가 출연한 자금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다자간 원조의 **70~85%**를 차지
-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05년에는 IDA, IDB S.F., ADF, AfDF 앞으로 각각 42%, 28%, 11%, 4%가 배분됨

우리나라의 재원보충 지출 추이(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다자간원조(a)	26.0	31.6	51.4	80.2	44.5	35.8	74.3	58.0	186.2	80.9	93.1	72.0	120.7	92.6	287.2
재원보충 지출(b)*	11.1	21.5	24.3	24.3	17.7	0.0	27.8	24.0	87.8	56.5	57.0	52.7	85.4	71.3	234.0
비중(b/a)	42.8	68.0	47.2	30.3	39.8	0.0	37.4	41.4	47.2	69.8	61.2	<b>73.1</b>	<b>70.7</b>	<b>77.0</b>	<b>85.0</b>

\* IDA, AfDF, ADF, IDB S.F. 등 4개 기구에 대한 출연금(출자금) 지출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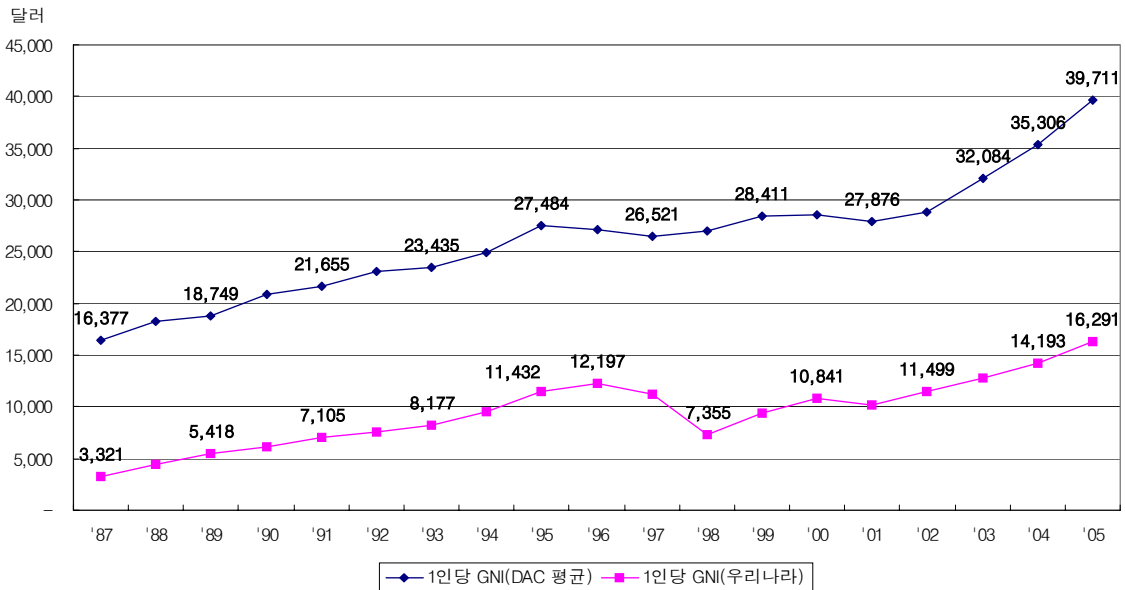
## 5.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조규모 확대가 요구되나 우리나라의 원조환 경과 소득수준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규모 확대가 필요
- 우리나라는 꾸준한 ODA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ODA/GNI 비율과 1인당 ODA 규모를 DAC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MDG 달성을 위한 국제원조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ODA 공여가 필요

4) IDA, AfDF, ADF, IDB S.F. 등은 설립이후 개발지원 사업에 사용될 재원조달을 위해 매 3~4년에 한번씩 재원보충(replenishment)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구의 재원보충을 위한 회원국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은 OECD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ODA)에 해당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잠재적인 대북 개발지원수요, DAC 회원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맹목적인 DAC 회원국의 평균수치 달성 추구는 무리
- 같은 맥락에서 ODA 규모의 대폭 확대, 원조의 언타이드화 등이 요구되는 DAC 회원국 가입에도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와 DAC 회원국(평균)의 소득수준 비교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원조가 동일 지역과 국가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조형태에 따른 지역별 역할 분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는 지역별, 국가별, 소득그룹별로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지원규모 상위국가도 서로 중복되고 있으며 소득그룹별로도 하위 중소득국에 집중되고 있음
-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 원조(특히, 프로젝트 원조)가 유상원조와 결합한다면 효율적인 원조 시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대상지역을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채무상환능력과 국가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필요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
  - 반면, 무상원조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원조시혜 차원에서 아프리카(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지역의 최빈국 위주로 원조사업을 전개
  - 물론, 유상원조의 인프라 건설지원과 무상원조의 개발조사(F/S)와 같이 유·무상 원조의 연계 및 공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참여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일시적인 무상원조 확대보다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원국과의 중장기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상원조의 확대가 바람직
- 최근 3년간 무상원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동지역 전쟁과 쓰나미 발생 등 예외적인 사건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58%가 집중되었는 바, 중동지역이 안정되면 무상원조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지속적인 확대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원국과의 굳건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유상원조'의 지속적인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함
  - 특히, 유상원조는 자금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원조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무상원조 보다는 유상원조의 확대가 바람직
- 다자간 원조도 우리나라 OD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자간 원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 다자간 원조는 우리나라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IDA·AfDF 등의 신규 재원보충 실시, MDRI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IDB 가입에 따른 재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 이러한 다자간 원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회성 출연금 납입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참여 확대,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와의 연계,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가능

자 료 : 1. 한국수출입은행, Korea's DAC Questionnaire for Reporting on Resource Flows 1987~2004  
2. 한국수출입은행, Korea's Advance Questionnaire on Main ODA Aggregates of 2005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1**

**JBIC, FY2006 1사분기(4~6월) 업무실적 발표**

- 일본 JBIC은 최근 2006 회계연도 1사분기(4~6월)의 업무실적을 발표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총 52건(5,159억엔)을 승인
  - 국제금융 부문은 대출 29건(3,149억엔), 보증 8건(563억엔)을 승인
    - 대출 : 사우디아라비아 합성섬유 원료제조사업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브라질 제유공장 근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말레이시아·타이 앞 현지 일본계 기업 및 현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금융(언타이드 론) 등
    - 보증 : 말레이시아·타이 앞 해외투자사업, 미국으로부터의 항공기 수입 등에 필요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
  - 해외경제협력 부문은 총 16건(1,447억엔)의 엔차관 사업을 승인
    - 이집트 박물관 건설사업, 튀니지 급수사업, 중국 환경보전 및 인재육성 사업, 방글라데시 상수도 정비사업 등

JBIC의 최근 5년간 승인액 추이

(단위 : 억엔)

부 분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12,608	10,599	10,831	9,020	10,678	3,149
	보 증	873	3,335	2,409	2,160	2,736	563
	출 자	-	-	-	22	-	-
	소 계	13,481	13,934	13,240	11,202	13,414	3,712
해외경제협력	엔차관	6,878	5,531	5,877	7,986	5,698	1,447
	해외투융자	-	5	-	-	-	-
	소 계	6,878	5,536	5,877	7,986	5,698	1,447
합 계		20,359	19,470	19,116	19,188	19,112	5,159

※ JBIC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1~익년도 3.31, 즉 FY2006은 2006.4.1 ~ 2007.3.31

- JBIC은 동 기간동안 **2,863억엔**을 집행하고 5,199억엔을 회수하여 동 분기말 대출잔액(엔차관 포함)은 **19조 2,454억엔**, 보증잔액은 **1조 720억엔**을 기록
- 국제금융 부문의 경우, 출용자는 집행액 1,897억엔, 회수액 3,662억엔, 잔액 7조 7,201억엔을 기록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720억엔을 기록
- 해외경제협력 부문은 동 기간동안 엔차관 사업에 대해 **967억엔**을 집행하고 1,537억엔을 회수하여 1사분기말 차관잔액은 **11조 5,253억엔**을 기록

JBIC의 최근 5년간 집행액 추이

(단위 : 억엔)

부 문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13,032	11,489	11,294	10,287	8,514	n.a.
	보 증	1,697	2,406	2,418	2,872	2,941	n.a.
	출 자	-	-	-	1	3	n.a.
	소 계	14,729	13,895	13,712	13,159	11,458	1,897
해외경제협력	엔차관	6,559	5,959	6,296	6,597	6,576	967
	해외투용자	18	7	3	24	1	-
	소 계	6,576	5,966	6,299	6,621	6,577	967
합 계		21,305	19,861	20,011	19,780	18,035	2,863

JBIC의 최근 5년간 잔액 추이

(단위 : 억엔)

부 문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105,577	97,607	90,870	84,998	79,111	77,201
	보 증	5,556	6,305	7,457	9,035	10,551	10,720
	출 자	11	11	-	1	-	-
	소 계	111,144	103,923	98,327	94,034	89,662	87,921
해외경제협력	엔차관	109,982	112,265	113,198	113,359	115,817	115,253
	해외투용자	1,801	1,617	1,592	1,596	-	-
	소 계	111,783	113,882	114,790	114,955	115,817	115,253
합 계		222,927	217,806	213,117	208,989	205,479	203,174

- 동 기간의 엔차관 승인사업(16건)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 건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 우대조건\***을 처음 적용한 사례

\* 일본 JBIC이 올해 초 최빈국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조건으로 최빈국 중에서도 빈곤국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가까운 0.01%의 최저금리(Minimal Interest Rate Initiative: MIRAI)와 상환기간 4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을 적용

- JBIC은 방글라데시에 대해 상수도 정비사업, 송전망 정비사업, 통신네트워크 개선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약 249억엔의 차관공여계약을 체결
  - 상수도 정비사업은 122억 2,400만엔이 지원되며 Chittagong시의 생활·산업용수 공급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 송전망 정비사업에는 46억 4,200만엔이 지원되며 변전소 신설 및 기존 변전소 시설 개선, 송전선 증설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통신네트워크 개선사업에는 80억 4,000만엔이 지원되어 국제교환기의 증설, 주요 전송설비의 확장,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 통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에 대한 엔차관 지원개요(2006년 1사분기)

구 분	승인액 (억엔)	금리 (%)	상환기간/ 거치기간	구매조건
상수도 정비사업	122	0.01	40/10	언타이드
송전망 정비사업	46	0.01	40/10	언타이드
통신네트워크 개선사업	80	0.01	40/10	언타이드
합 계	249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2

## 인도, 대외원조 수혜 현황 및 전망 발표

### 1. 대외원조와 인도

- 인도는 4대 신흥시장(BRICs)의 하나로서 많은 인구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급속한 고성장으로 선진국을 추월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률은 2050년까지 5%이상을 유지할 것이고, GDP는 2032년에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미국 골드만 삭스의 BRICs 보고서)
-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선진 원조공여국들은 인도의 시장잠재력을 간파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유상차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원조 공세를 취해 왔음
  - 예컨대, FY2005 인도 정부의 대외원조 수혜액(약 40억 달러) 중 83%(33억 달러)가 유상차관
    - FY2005 양자간 원조의 경우에는 수혜액(16억 달러)의 62%가 유상차관
- 그러나, 인도는 BRICs 국가들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원조 수락에 있어서는 매우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05년 1인당 GNI가 720달러에 불과하나 양자간 원조는 G-8국가와 EC로부터만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고수
    - 그 외의 국가들은 인도 정부에 대한 원조 공여가 불가하므로 굳이 원조 공여를 원할 경우 NGO나 대학 등 비정부기관에 공여하도록 권고

### 2. 인도의 원조수혜 실적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FY2005 원조수혜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약 40억 달러(1,756억 루피)에 이른 것으로 추정
  - 유상원조는 33억 달러로서 전체 원조의 83%를 차지한 반면, 무상원조는 7억 달러에 불과

- 유상원조의 71%는 IDA와 IBRD 등 다자간 원조기구가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일본, 러시아 등이 제공
- 무상원조의 87%는 과거宗主국이었던 영국 등이 양자간 원조를 통해 제공

인도 앞 원조의 구성(FY2005)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다자간	양자간	합 계	
			금액	비중
유 상	2,323	974	3,297	82.8%
무 상	87	598	685	17.2%
합 계	2,410	1,572	3,982	100.0%

※ FY2005은 2005.4.1 ~ 2006.3.31

- **다자간 원조가 24억 달러**로서 전체 원조의 61%를 차지한 반면, **양자간 원조는 16억 달러**를 기록
  - 다자간 원조의 96%는 유상차관으로서 IDA, IBRD, ADB가 각각 12억 달러, 6억 달러, 5억 달러를 제공
  - \* 다만, IBRD와 ADB의 차관은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양허성 차관'은 아니나 상업차관 보다는 조건이 다소 유리한 '준 양허성 차관(Semi concessional loan)'으로 간주
  - 양자간 원조의 62%는 유상차관으로서 일본, 러시아가 각각 6억 달러, 3억 달러를 제공
- 인도 정부는 **FY2006**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6.4% 증가한 **42억 달러**(1,868억 루피)의 원조를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
- 유상원조 중심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유상원조가 전체 원조의 86%를 차지할 전망

인도 앞 원조의 구성(FY2006 전망치)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다자간	양자간	합 계	
			금액	비중
유 상	2,502	1,140	3,643	86.0%
무 상	90	503	593	14.0%
합 계	2,593	1,643	4,236	100.0%

- 인도에 대한 유상차관의 주요 공여주체는 다자간 원조에서는 세계은행, 양자간 원조에서는 일본을 들 수 있음
- 다자간 원조에서는 IDA, IBRD, ADB 등 3개 국제금융기구가 전체 원조의 약 70%를 차지
- 양자간 원조에서는 일본의 비중(약 19%)이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을 들 수 있음

인도 앞 유상차관 공여 현황 및 전망(총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공여주체	FY2005(추정)		FY2006(전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다자간	IDA	1,205	36.5%	1,039	28.5%
	IBRD	601	18.2%	880	24.2%
	ADB	498	15.1%	556	15.3%
	IFAD	20	0.6%	27	0.7%
	소 계	2,323	70.5%	2,502	68.7%
양자간	일본	622	18.9%	747	20.5%
	러시아	333	10.1%	364	10.0%
	독일	14	0.4%	24	0.7%
	프랑스	4	0.1%	3	0.1%
	이태리	1	0.0%	2	0.1%
	소 계	974	29.5%	1,140	31.3%
합 계		3,297	100.0%	3,643	100.0%

### 3. 주요 원조공여주체별 지원동향

- 세계은행은 인도에 대한 전체 유상차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FY2005 기준 54.7%)
- IDA는 현재 인도에 대한 제일의 유상차관 공여기관(FY2005 기준)으로서 1961년부터 2005년 3월말까지 267억 달러의 유상차관을 공여
  - FY2004에는 도로, 보건,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 8개 프로젝트, 총 13.3억 달러의 유상차관 공여계약을 체결
- IBRD는 현재 인도에 대한 제2의 유상차관 공여기관(FY2005 기준)으로서 2005년 3월말까지 380억 달러의 유상차관을 공여

- FY2004에는 용수, 도로, 중소기업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5개 프로젝트, 총 7.4억 달러의 유상차관 공여계약을 체결

□ ADB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인도에 대한 제3위의 유상차관 공여기관임

- 인도는 ADB 앞 출자금 기준으로 제4위의 회원국(일본, 미국, 중국 다음)
  - 인도는 으로서 ADB 설립 당시(1966년)에는 ADB로부터의 차입을 자제하였다가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1986년부터 유상차관을 도입하기 시작
- ADB가 2005년 10월말까지 승인한 인도 정부에 대한 유상차관은 총 144억 달러에 달함
  - ADB의 유상차관은 현재는 교통 및 통신, 에너지, 금융, 산업, 사회인프라, 관개 시설 등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FY2004에 승인한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송전, 관개시설 등 총 6건으로 12.5억 달러에 달함

인도에 대한 유상차관 지원조건 비교  
(2006년 1월 기준)

구분	공여주체	통화	대출형태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	이자율 (%)	약정수수료 (%)	
다자간	IBRD	USD	준 양허성 차관 (Semi Concessional)	5	20	변동금리 (6 Mo LIBOR + Spread)	0.75	
	IDA	SDR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10	35	0.75	0.35	
	IFAD	SDR	양허성 차관	10	50	0.75	-	
	ADB	USD	준 양허성 차관	3~5	23~25	변동금리 (6 Mo LIBOR + Spread)	0.75	
	OPEC	USD	양허성 차관	5	17	3.0	-	
양자간	독일	EUR	혼합신용 (Mixed)	정부대출분	10	40	0.75	0.25
				은행대출분	2	12	5.07~6.79	0.25
	프랑스	EUR	혼합신용	5	22	2.8	-	
	일본	Yen	양허성 차관	10	30	1.3	-	
	스위스	S.Fr.	수출금융	3	15	변동금리	-	
	러시아	USD	양허성 차관	6	20	4	-	

\* 거치기간 포함



- **일본**은 인도에 대해 1958년부터 원조를 공여해 온 **제일의 양자간 원조공여국**으로서 엔차관은 JBIC을 통해, 무상원조는 JICA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JBIC은 일찍부터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엔차관 개시 이후 FY2004까지 총 2조 1,937억엔을 승인
    - FY2004에는 8개 프로젝트에 대해 1,245억엔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기간 동안 **701억엔**을 집행
    - 2005년 3월말 기준 엔차관 잔액은 1조 851억엔 수준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승인액이 4,228억엔에 달함
    - FY2005에는 차관지원 후보사업으로 19개의 기본사업과 6개의 추가사업 등 총 25개의 사업이 제시되어 2005년 8월부터 협의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JICA를 통해 인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엔차관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규모**(FY2004 지출액 기준으로 엔차관의 1.2% 수준)
    - 프로젝트형 무상원조, 어업지원용 무상원조,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무상원조, 채무구제 등 다양한 형태의 무상원조를 제공
    - FY2000부터 FY2004까지 최근 5년 동안 24억엔의 무상원조를 제공(FY2004에는 8.8억엔)
- **독일** 역시 1958년부터 인도에 대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하여 왔으며 현재는 **‘양국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금융 및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 금융협력은 양허성 차관, 무상원조, 상업차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기술협력은 무상원조 형태로 제공
    - 양허성 차관은 금리가 0.75%, 상환기간이 4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인 반면, 상업차관은 시장금리로 제공되며 상환기간 10년 내외
    - 독일 정부는 인도에 대해 FY2004에는 74백만 유로의 양허성 차관과 19백만 유로의 무상원조를 승인
  - 2005년 5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양국간의 연례협약에서 독일은 **3대 우선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선언



- (i)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ii) 환경정책, 자연자원 보전 등 **환경 분야**, (iii) 소액금융,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경제개혁 분야** 등

- 영국은 과거 식민지 역사를 배경으로 인도에 대해 1958년부터 원조를 제공해 온 **제일의 무상원조 공여국**으로서 DFID를 통해 금융협력과 기술협력 형태로 무상원조를 공여하고 있음
  - 영국 DFID는 2004년 3월 인도에 대한 ‘국가지원계획 2004-2008’을 수립하여 연간 3억 파운드의 원조를 공여할 계획
  - 현재 DFID가 추진 중인 인도 프로젝트는 30여개, 약 12억 파운드에 달함
-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인도에 신규 유상차관 공여가 중단된 상태이나 기승인된 Kudankulam 핵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이 진행 중
  - FY2005에는 3.3억 달러의 유상차관이 집행되었고, FY2006에는 3.6억 달러가 집행될 예정

자 료 : 1. India's Receipts Budget, 2005-2006, Ministry of Finance, India  
2. India's Receipts Budget, 2006-2007, Ministry of Finance, India  
3. External Assistance Brochure 2004-2005, Ministry of Finance, India  
4.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External Loans to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India, Jan. 2006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자료협조 : 뉴델리사무소 김 영 섭, [kyslsm@koreaexim.go.kr](mailto:kyslsm@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3

## IBRD와 IFC, IDA와 대규모 신규재원 공여

- 2006년 8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금융공사(IFC)는 저소득국의 빈곤퇴치와 개발지원을 위해 이익잉여금 중 9억 5천만 달러를 저소득국 지원전담 기관인 국제개발협회(IDA)에 공여
  - 세계은행 그룹은 전세계 빈곤퇴치 지원을 위한 원조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빈곤국들의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동 그룹의 다자간원조기관인 IDA에 동 금액을 제공
  - IBRD는 1964년 이후 매년 이익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IDA에 공여해 왔으나 이번 자금공여 9.5억 달러는 사상 최대 규모(작년에는 4억 달러를 공여)
    - 동 금액은 당초 예상액(5억 달러) 보다는 거의 2배로 확대된 것으로 IBRD 8억 달러, IFC 1.5억 달러로 구성
  - IBRD와 IFC는 FY2006의 양호한 재무상태와 낙관적인 재무 전망을 바탕으로 거액의 자금이체를 단행
  - 또한, 세계은행 그룹의 민간부문 지원기관인 IFC의 이익잉여금을 인출하여 제공하기는 처음
    - IFC의 지원금은 IFC 및 IDA 동시 가맹국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위해 무상원조 (grants) 형태로 사용될 예정임
- 또한, 세계은행은 신용도가 양호한 개도국(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인출수수료(front-end fee)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
  - IBRD는 1998년 수지상황이 악화에 따라 동년 7월 31일 이후 신규 차관취급분에 대해 부과해 오던 1%의 인출수수료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함
    - 인출수수료 면제 조치는 FY2007년에 지원되는 모든 IBRD 차관에 적용됨

- IDA는 세계은행 그룹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회원국들로부터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IDA14 (FY2006~FY2008: 2005.7~2008.6) 동안 약 34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공여할 계획
  - IDA14의 자금지원규모는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IDA13 보다 약 30%나 증가한 것임
  - IDA는 2005년 2월 재원보충회의에서 IDA14의 소요자금은 40여개 공여국의 출연금(180억 달러)과 세계은행 그룹의 자체재원(160억 달러)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
    - 주요 재원공여국은 미국(28억 5,000만 달러), 영국(27억 2,580만 달러), 일본(25억 3,140만 달러), 독일(17억 250만 달러) 등이고 우리나라는 IDA14에 1억 8,82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함
    - 세계은행 그룹의 자체재원은 대부분 IDA의 자체재원을 말하는 것이나 약 10% 정도(약 16억 달러)는 IBRD로부터 이전받기로 되어 있으며 금번에 제공된 자금지원은 이것의 일부
  - MDG 달성시한(2015년)까지는 두 번의 재원보충 기회(IDA15와 IDA16)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내년부터 재원보충 협상이 시작되는 IDA15(FY2009~FY2011)의 소요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원조공여국들의 IDA앞 출연금 부담도 늘어나 다자간 ODA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조정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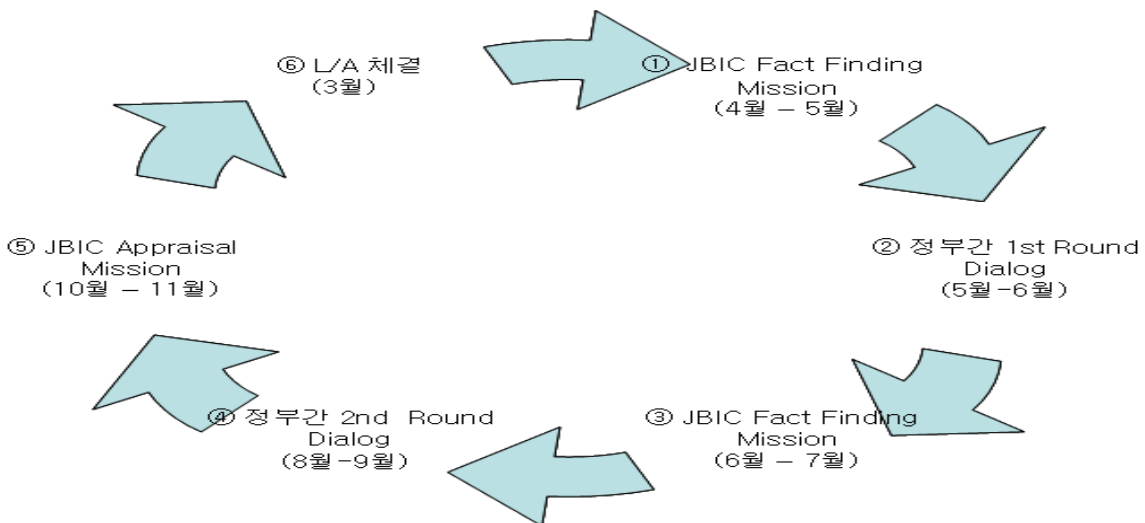
## JBIC의 대 인니 차관사업 발굴 체계

### 1. JBIC의 사업발굴 사이클 (연 단위)

#### 가. 개요

- JBIC 회계연도(4월~3월)에 맞추어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L/A) 체결을 목표로 함 (연 단위로 체결)
  - 1년 동안 발굴된 사업을 매년 3월 중에 일괄적으로 L/A를 체결
- 대 인니 엔차관 사업 발굴을 위한 일본과 인니의 정부간 협의(Dialog)는 연 2차례 실시됨
  - 상반기(1차) 협의에서는 중장기 지원사업목록(Long List)을 작성(갱신)하고, 하반기(2차) 협의에서는 익년도 L/A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목록(Short List)을 확정
  - 두 차례의 정부간 협의를 위해서는 JBIC의 Fact Finding Mission이 선행됨

#### L/A체결까지의 사업발굴 사이클



## 나. 각 사업발굴 단계별 내용

### ① Long list 작성을 위한 JBIC의 Fact Finding Mission (4~5월)

- 당해연도 지원사업이 확정(3월의 L/A 체결)된 직후 JBIC은 Fact Finding Mission을 파견하여 사업실시부처(Line Ministry)와의 부문(Sector)별 협의를 통해 향후 지원사업 목록(Long list)을 작성(갱신)

### ② 정부간 1st Round Dialog (5월~6월)

- 정부대표(JBIC 포함)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양국 정부간(Bappenas, 재무부, 외무부 등) 협의로서 Long list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 → 중기 후보사업 (Mid-term candidate projects)으로 등록

### ③ Short list 확정을 위한 JBIC의 Fact Finding (6월~7월)

- 중기 후보사업에 기초하여 JBIC은 익년도 지원사업 확정을 위한 Fact Finding Mission을 파견 → 인니 사업실시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Short list 확정을 논의

### ④ 정부간 2nd Round Dialog (8월~9월)

- 정부대표(JBIC 포함)가 참여하는 양국 정부간 협의로서 익년도(Single year) 지원사업(Short list)을 확정하고 인니 정부의 지원을 요청

### ⑤ 익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JBIC의 Appraisal Mission (10월~11월)

- JBIC은 인니정부가 요청한 Short list 프로젝트를 심사

### ⑥ 지원사업 계획 발표(12월~2월) 및 차관계약 체결 (3월)

- 일본정부는 L/A 체결에 앞서 JBIC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CGI Meeting(원조공여국 회의) 등을 통해 연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 (12월~2월)
-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대해 JBIC과 인니정부는 L/A를 체결 (3월)

## 2. 일본의 개별사업 발굴 지원수단

- ※ 일본의 엔차관 사업발굴은 주로 JBIC의 사업발굴지원제도(SAPROF), JICA의 무상 개발조사, 민간부문의 개발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
  - JBIC 관계자는 인니에서는 상기 3가지 방식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함

### 가. JBIC의 사업발굴지원제도(SAPROF)

- SAPROF(Special Assistance for Project Formation)는 JBIC이 일본 엔차관 사업의 타당성조사(F/S) 지원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인니 정부가 우선순위 개발사업에 대한 차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F/S를 무상으로 제공
    - 지원규모는 1건 당 평균 60만 달러 규모(최대 1백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로서 연평균 30건(인니의 경우 연평균 3건) 내외를 지원

### 나. JICA의 개발사업지원제도(Development Project Assistance)

- JICA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술협력으로 특정 분야 및 사업에 대한 개발조사(F/S)를 제공
  - JICA의 개발조사는 타이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본 컨설턴트가 참여하게 되며 JBIC의 본 사업과도 연계됨

### 다. 민간부문(일본 기업)의 F/S 지원

- 일본기업 또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사업발굴을 위해 F/S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부분 일본기업만이 사업참여가 가능한 **JBIC의 STEP<sup>5)</sup> 차관과 연계됨**
  - 다만, JBIC과 인니정부는 일본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불허하고 있음
    - 이런 경우에는 발굴기업에 대한 직접계약 보다는 일본기업간 입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5) 일본기술활용조건(STEP: Special Terms for Economic Cooperation)은 일본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2002년 7월 도입된 '타이드 엔차관'으로 언타이드 엔차관에 비해 금리가 훨씬 낮고 상환기간이 장기

### 3. 일본 컨설턴트의 역할 및 현황

- 개발사업 지원 시 컨설턴트 수행업무는 크게 i) 사업발굴(Project formation) 단계에서의 F/S 수행, ii) 본 사업 단계에서의 설계, 감리 등을 들 수 있으나, 인니에서 JBIC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은 일본 컨설턴트가 수행
  - 사업발굴 단계에서는 일본 JBIC의 SAPROF와 JICA의 개발사업지원제도가 가동되어 일본 컨설턴트 기업만이 개발조사(F/S)에 참여할 수 있음
  - 본사업 단계에서는 설계, 감리 등을 위해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F/S에 참여하였던 컨설턴트가 유리하므로 실제로는 일본 컨설턴트가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JBIC의 컨설턴트 고용 가이드라인에도 F/S 수행업체의 본 사업 컨설턴트 수행을 권장하고 있어 **일본 컨설턴트의 낙찰 실적이 60% 가량**이며 일본의 현지 컨설팅기업까지 감안한다면 낙찰 실적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일본 컨설턴트가 본 사업 단계의 설계, 감리 등을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F/S에서의 주요 스펙이 일본산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사업의 주요 기자재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되는 경우가 많음
- 인니에 기반을 둔 일본 컨설팅 업체는 약 10여개 정도
  - 일본 컨설팅 업체는 일본해외컨설팅기업협회(ECFA: Engineering & Consulting Firms Association)를 활용하여 현지에서의 개발 컨설팅을 제공
    - ECFA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본 컨설턴트 협의체로서 1년에 2번 정기모임으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

작 성 : 인니주재원 홍 성 훈, [hongs@koreaexim.go.kr](mailto:hongs@koreaexim.go.kr)

정 리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2】

## IBRD와 IDA의 주요 특성 비교

### 1. 기본 개요

#### □ 설립 목적(성격)

- IBRD는 당초 장기 개발자금 공여를 통한 유럽 전후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미국이 유럽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실시하자 중소득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력
- IDA는 저소득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장기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양허성 장기자금의 공급을 통해 IBRD의 차관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

#### □ 설립 시기

- IBRD는 1946년 6월 업무시작(1945년 12월 설립협정문 발효)
- IDA는 1960년 11월 업무시작(1958년 제13차 IMF/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IDA 설립제안)

#### □ 조 직

- IBRD와 IDA, 두 기관을 통칭하여 세계은행(World Bank)<sup>6)</sup>이라 하나 IDA는 IBRD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임
- 그러나, IBRD가 IDA의 주요 직위를 겸임하면서 IDA의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IDA는 IBRD의 하부 기금 성격을 가짐
  - IBRD는 IDA의 총회 위원·상무이사·총재 등을 겸임하면서 IDA의 정책수립과 업무집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실무부서도 IBRD와 IDA는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운용되고 있음

#### □ 회원국

- IBRD의 회원국은 2006년 8월말 현재 184개국(우리나라는 1955년 가입)

6) 참고로 IBRD, IDA, MIGA, IFC, ICSID 등 5개 기관은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함



- IDA는 IBRD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2006년 8월말 현재 IBRD 회원국 중 165개국이 IDA에 가입(우리나라는 1961년 가입)
- IDA 회원국(165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자원공여국이 주로 가입된 제1부국(Part I; 27개국)과 개도국을 주축으로 한 제2부국(Part II; 138개국)으로 구분(우리나라는 제2부국 소속)

## 2. 재원 조달 및 구성(규모)

### □ 재원 조달

- IBRD는 회원국의 출자자본금, 차입금, 이익잉여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조달하나 주로 차입금에 의존
- IDA는 회원국의 출자금, 출연금, IBRD로부터의 이전수입, 재원운용수익 등을 통해 조달하나 주로 정기적인 재원보충을 통한 회원국의 출연금에 의존

### □ 재원 구성(규모)

- IBRD의 재원은 2006년 6월말 현재 출자자본금 1,897억 달러(납입자본금<sup>7)</sup> 115억 달러, 최고자본금<sup>8)</sup> 1,782억 달러), 차입금 958억 달러 등으로 구성
- IDA의 재원은 2006년 6월말 현재 자원공여국의 출자·출연금 1,300억 달러(약정액 기준 약 1,402억 달러), IBRD로부터의 이전수입 86억 달러 등으로 구성

## 3. 지원 조건

### □ 지원대상국

- IBRD는 1인당 GNI가 2005년 기준 6,055달러 이하인 중소득 개도국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IDA는 2005년 기준 1인당 GNI가 1,025달러 이하의 저소득 개도국을 지원

7)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 회원국이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는 교환성 통화로 나머지는 가맹국 통화로 실제 납부하는 자본금을 말하며, 가맹국 통화 납입분은 가맹국 정부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음

8)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 :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자재원으로서는 직접 사용될 수는 없으나 IBRD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납입을 요청할 경우 납입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제금융시장 차입시 담보가 될 수 있어 IBRD의 용자재원 조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금을 말함

- IBRD-only 국가에 대해서는 IBRD가, IDA-only 국가에 대해서는 IDA가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Blend 국가에 대해서는 IBRD와 IDA가 동시 지원 가능함
- 이에 따라, 2006년 7월 1일 현재 15개의 Blend 국가를 포함할 경우 IBRD의 지원 대상국은 최대 79개국, IDA는 최대 81개국에 달함

세계은행 지원대상국 분류(2006년 7월 1일 기준)

그룹	특성	국가수	비고
IBRD-only 국가	IBRD만 수혜	64	우리나라 포함
Blend 국가	IBRD와 IDA 둘다 수혜가능	15	
IDA-only 국가	IDA만 수혜	66	

□ 지원 형태

- IBRD는 주로 차관, 지분참여, 지급보증 등을 통해 중소득 개도국을 지원하며, 차관의 경우는 주로 상환전망이 확실하며 수익성 있는 사업만을 지원
- 수원국 정부지급보증부의 공공부문차관(public sector loans with government guarantee)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무보증 차관(private sector loans without government guarantee)도 가능
- IDA는 주로 차관, 무상원조 등을 통해 저소득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관의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지급보증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차관만이 가능

□ 차관지원 조건

- 차관금리의 경우, IBRD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이나 IDA는 무이자
- IBRD는 6개월물 Libor에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변동스프레드(variable spread) 또는 고정스프레드(fixed spread)를 가산하여 매 6개월마다 금리를 산정
- IDA는 모든 차관이 무이자이며 연 0.75%의 취급수수료(service charge)만 부과
- ※ IDA는 FY1989~FY2003 동안 약정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으나 FY2004부터 모든 미인출잔액에 대해 0.2%~0.5%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부과

- 차관기간은 IDA가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므로 IBRD에 비해 훨씬 장기
  - IBRD의 차관기간은 수원국의 1인당 GNI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15~20년 (거치기간 3~5년 포함)
  - IDA는 IDA-only 국가의 경우 40년, Blend 국가의 경우 35년(각각 거치기간 10년 포함)

IBRD와 IDA의 비교표

구 분	IBRD	IDA	비 고
설립목적 (성격)	장기 개발자금 공여로 중 소득 개도국 개발지원	양허성 장기자금 공여로 저소득 개도국 개발지원	IDA는 IBRD 를 보완
회원국	184개국	165개국	IBRD 회원국만이 IDA 가입가능
재원규모	- 출자자본금 : 1,897억 달러 - 차입금 : 958억 달러	- 출자·출자금 : 1,300억 달러 - IBRD 이전수입 : 86억 달러	2006년 6월말 기준
재원구성 (조달)	회원국의 출자, 대외차입	회원국의 출자·출연, IBRD 이전수입 등	
지원대상국	1인당 GNI 6,055달러 이 하인 중소득 개도국	1인당 GNI 1,025달러 이 하인 저소득 개도국	2005년 기준
지원형태	- 차관, 지분참여, 지급보증 - Public/Private Sector 모두 가능	- 차관, 무상원조 - Public Sector만 지원	
차관조건	- 금리 : 변동금리 (6개월 Libor + Spread) - 기간 : 15~20년 (거치기간 3~5년 포함)	- 금리 : 무이자 (단, 연 0.75%의 수수료 부과) - 기간 : 35~40년 (거치기간 10년 포함)	

자 료 : 1.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pp.147~208, 2005.3  
2. World Bank, Annual Report 2006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mailto:cch@koreaexim.go.kr)

목차보기